

2017 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박동규 dgpark@krei.re.kr, 노수정 nosu303@krei.re.kr, 윤선희 sunny@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056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8
5. 금융·환율	13
6. 세계경제	16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8
2. 농촌 물가	19
3. 농림어업 취업자	22
4. 농축산물 수출입	24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9
2. 엽근채소	34
3. 양념채소	39
4. 과일	47
5. 과채	51
6. 축산	58

특별주제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67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83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89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 및 건설투자와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2017년 1/4분기 민간소비는 거주자 국외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 증가로 전분기 대비 9.7% 증가함.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됨.
- 2017년 1/4분기 취업자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감소세가 지속됨.
- 2017년 3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제와 비내구제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내구재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보합세임. 소비심리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3.2% 증가함.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고 이 중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함.
- 2017년 2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3% 증가함.
- 2017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와 함께 하락함.
- 2017년 1/4분기 원/달러와 원/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7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의 리스크가 상존함.

II.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최근 3분기 동안 침체되었으나 2017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 전분기 대비 9.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미국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하락함.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전분기 대비 9.2% 하락함. 이는 과채류는 상승한 반면, 엽채류와 조미채소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기 때문임. 한편,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8%, 전분기 대비 55.9% 상승함. 축산물 판매가격지수는 돼지, 가금류, 계란 등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전분기 대비 0.5%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영농광열비와 농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0.5% 하락한 반면,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2017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 전분기 대비 8.7%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이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전분기 대비 20.6%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하고 전분기보다 1.4% 감소함.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1.8%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농산물과 축산물 증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9% 증가한 63억 2,600만 달러임.
 - 수출의 경우, 축산물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12.6%, 31.0% 증가함. 수입의 경우에는 농산물 11.1%, 축산물 19.3%, 임산물 6.9% 증가로 모든 부류에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Ⅲ. 특별주제

1.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 더불어민주당은 신정부 공약을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음. 농정 공약은 4대 비전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살기 좋은 농산어촌’에 주로 제시되어 있음.
-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서는 8가지 공약(어업·어촌 관련 제외)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분야는 제도 및 거버넌스, 쌀 가격 안정, 경영 및 소득 안정, 농업인 복지, 여성 농업인, 유통체계, 숲의 가치 재정립 등임. 다른 분야 공약 중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일자리 관련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의료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대책, 다문화 가족 지원 등도 농업·농촌과 관련 있음.
- 농업·농촌 공약에서 표방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은 새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음. 세부 공약 내용은 농업인과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려는 정책임. 특히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농업을 국가 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촌을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삶의 공간으로서 그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중요한 점은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책들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임. 농가 소득안정,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복지, 생산자 조직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 농업의 유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농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 관련 정책이 크게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함. 약화되어 온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쌀 관련 공약 중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공약과 상충되는 면도 있음. 따라서 향후 다소 모순이 되는 공약들을 점검하고 정리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 국내 쌀 수급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7~2016양곡연도)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8만 톤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됨.
- 작년에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감소함.
 - 3년 연속 풍작으로 수확기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불사태도 발생함.
- 이에 정부는 기존의 2015년 대책에 유통·해외원조·제도개선 분야를 추가 및 세분화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함.
- 금년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 톤 이상 많은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 6천 ha로 작년보다 3.0% 감소하였지만 정부 감축 목표치인 74만 4천 ha에 비해 1만 2천 ha 많은 수준임.
 - 4월 벼 재배의향면적(75만 6천 ha)을 적용한 2017년 생산량 전망치(평년 단수 적용)는 395만 톤으로 신곡예상수요량 380만~385만 톤에 비해 10만~15만 톤 초과공급이 추정됨.
 - 초과공급 발생 전망과 함께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금년에도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동직불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 금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으나, 이모작 논·타작물 유도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임.
 - 농가 조사결과, 약 8천 ha 정도가 타작물로 전환되며, 사료작물과 콩으로의 전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한편, 타작물 전환으로 인한 대상품목의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질소질 비료 과다시비는 쌀 품질을 하락시키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만큼, 적정 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 국내 건고추 생산량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 못 미쳐, 국내 건고추산업이 위기에 직면함.
 - 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은 32,179ha로 2000년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85,453톤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2015년 건고추 실질생산액(2010=100)은 7,425억 원으로 2000년 대비 49% 감소하여 건고추산업 위기에 직면함.
-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2000~2016년 연평균 5.1%씩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세인 것이 위기임.
 - 2000~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 5.2%씩 감소, 생산량은 5.1%씩 감소함.
 - 2011년 생산량이 7만 7천 톤에 그치면서 도매가격은 1만 3,840원/600g으로 상승함.
 - 2012~2013년 생산량 증가로 국내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대량수요처의 수요가 수입산으로 전환되어 국내산 수요 감소, 국내산 이월 재고량 증가, 건고추 가격의 지속적인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됨.
- 고추류 수입량 증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저울관세 품목(냉동고추 등) 위주로 크게 증가함.
 - 수입산 건고추(냉동)의 국내 판매가격은 600g당 4,470원, 국내산의 60% 수준임.
- 국내산 건고추 총 소비량은 2000~2015년 연평균 1.6%씩 감소, 국내산은 연평균 5.1%씩 감소, 국내산 이월 재고량 증가, 자급률은 하락함.
- 건고추 재배규모 확대와 수확기계 도입을 위해 밭 기반 정비로 기계화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배품종 단순화로 대량수요처 선호를 반영할 필요
- 가격과 상관없이 품질 좋은 건고추를 소비하는 소비처와 대량소비처에 대응하여 고춧가루 생산 다양화가 필요하며, 도매유통 시 비닐포장 확대로 고춧가루 품질을 관리하고, 수입산과의 혼합비율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
- 국내산 고춧가루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등급을 표시하고 산지와 고춧가루 대형수요처 간의 산지직거래 방안 마련 필요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이 증가로 전환됨.
 -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로 3분기 만에 회복세를 나타냄.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줄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음.
 - 2017년 1/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분기 대비 5.3%,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함.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여 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3%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수입은 기계, 장비 및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선희 연구원(sunny@krei.re.kr), 박동규 명예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17.4.27)」,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17.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5					2016 ^p					2017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 D P 성장률	0.8	0.8	0.4	1.3	0.7	0.6	0.5	0.9	0.5	0.5	0.9(2.7)
민간소비	0.9	0.9	-0.3	1.3	1.5	0.4	-0.1	0.8	0.6	0.2	0.4(2.0)
정부소비	0.8	-0.1	1.1	1.0	1.3	0.9	1.4	0.6	0.9	0.6	0.5(2.7)
건설투자	2.6	9.0	1.4	2.1	-2.2	2.9	7.6	3.1	2.2	-1.2	5.3(9.7)
설비투자	0.8	0.3	0.8	1.9	0.0	0.6	-7.0	2.6	0.9	5.9	4.3(14.3)
총 수 출	0.4	-0.3	-0.2	0.1	2.1	0.3	-0.6	1.0	1.0	-0.1	1.9(3.7)
총 수 입	1.2	0.1	0.7	1.2	2.9	0.8	-1.5	2.2	2.6	-0.1	4.3(9.4)

주 1. 2016^p, 2017^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 전분기 대비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증가로 전환되고, 제조업 증가폭이 확대됨.
 -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분기 대비 6.4% 증가하고 제조업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2.0%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줄었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0.1%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5					2016 ^p					2017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농림어업	-1.1	1.8	-8.3	4.1	-2	-1.1	3.7	-4.5	-1.9	-1.8	-2.0(6.4)
제조업	0.7	0.9	0.7	0.8	0.4	0.7	0.4	1	-0.4	1.8	4.4(2.0)
서비스업	0.7	0.6	0.3	1	0.8	0.4	0.4	0.5	0.6	0.2	1.5(0.1)
(도소매 및 음식숙박)	0.8	0.4	-0.4	1.3	1.9	0.4	-0.2	0.7	0.5	0.7	-1.2(0.6)
(금융 및 보험업)	1.3	1.8	2.1	2.3	-0.9	0.6	0.4	0.3	0.7	0.9	1.0(-0.9)
(부동산 및 임대)	0.2	0.7	0.2	0.2	-0.2	-0.1	1.2	-0.6	0.1	-0.9	0.5(1.9)
(보건 및 사회복지)	0.5	0.1	-0.2	2.7	-0.6	0.6	0.9	0.9	1	-0.5	2.7(1.4)

주 1. 2016^p, 2017^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17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2.6%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금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됨.
 - 2018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가계의 경기인식이 개선되면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6월말 종료 예정)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가계소득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은 상존함.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의 개선, IT부문 호조 등으로 설비투자 압력이 증대로 금년 중 증가세가 전망됨.
 - 다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주거용 건물은 2015~16년 중 크게 늘어난 주택 착공면적의 영향으로 금년 중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비주거용 건물도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당분간 양호하고, 토목은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출은 개선되겠으나, 서비스 수출이 중국 무역제재조치의 영향 등으로 부진을 보일 전망이다.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2016			2017 ^{e)}			2018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2	2.5	2.8	2.6	2.7	2.6	2.9
민간소비	2.9	2.1	2.5	1.9	2	2	2.3
설비투자	-3.7	-0.9	-2.3	9.5	3.3	6.3	3.4
건설투자	9.9	11.4	10.7	7.3	2.2	4.5	-0.1
상품수출	1.3	3	2.2	4	2.6	3.3	3.5
상품수입	2.7	4.5	3.6	6.2	1.8	4	3.4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7.4.13.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 참고

2. 2017^{e)}, 2018^{e)}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17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59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전분기 대비 20.6% 감소함.
 -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장년층, 실직자 등의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용률은 청년 및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청년층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확대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
- 2017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부진 등이 고용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음.

3) 고용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7.3월 고용동향(2017.4.12.)」와 「최근경제동향(2017.4.)」, 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3월 고용동향(2017.4.12.)」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2015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6,913 62.6	27,247 62.8	26,708 61.7	27,415 63.2	27,539 63.4	27,327 62.8	27,082 62.1	1.4 0.6
취 업 자	25,936	26,235	25,554	26,387	26,554	26,446	25,915	1.4
· 농 림 어 업	1,345	1,287	1,038	1,419	1,413	1,276	1,013	-2.4
· 광 공 업	4,500	4,500	4,561	4,522	4,458	4,460	4,453	-2.4
(제 조 업)	4,486	4,481	4,544	4,503	4,439	4,439	4,432	-2.5
· 건 설 업	1,823	1,845	1,748	1,829	1,882	1,921	1,880	7.6
· 도소매·음식숙박업	5,962	6,006	5,929	5,968	6,084	6,043	6,058	2.2
실 업 자	976	1,012	1,153	1,028	985	881	1,167	1.2
실업률(계절조정)	-	-	3.8	3.7	3.8	3.6	3.8	0.0

자료: 통계청

3. 소비4)

- 2016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함.
- 2017년 3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부진하여 전월 대비 각각 2.3%, 0.8%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여 전월 대비 보합세임.
- 방한 중국인 관광객 및 자동차 관련 소비 감소 등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나, 소비자 심리 개선, 할인점 판매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7.4)」와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2017.2.2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소 비 동 향

단위: %

	2015	2016					2017 ^p		
	연간	연간 ^p	1/4	2/4	3/4	4/4	1/4 ^p	2월 ^p	3월 ^p
민 간 소 비	2.2	2.5	-0.1	0.8	0.6	0.2	-	-	-
소 매 판 매	-	-	-0.2	2.0	-1.2	0.0	-0.4	3.2	0.0
(내 구 재) ¹	10.0	4.5	-4.0	5.1	-5.8	5.6	-0.3	3.7	3.1
(준내구재) ²	-1.1	2.5	-0.9	1.1	0.1	0.0	-1.0	2.9	-2.3
(비내구재) ³	3.1	4.7	2.5	0.6	1.1	1.0	-0.1	3.2	-0.8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6년^p, 2017년 1/4^p, 2월^p, 3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6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1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함.
 -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이 0.4% 증가하였고, 사업소득과 공적연금 중 이전 소득이 각각 2.2%, 2.9% 증가함.
- 2016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고 비 소비지출은 0.2% 증가함.
 - 소비지출은 246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81만 2천원으로 0.2% 증가함.
 - 자동차 구입 감소 및 유가하락으로 교통(-17.3%), 이동전화기기 구입 감소로 통신(-6.2%) 등이 주로 감소함.
 - 반면, 보건(8.5%), 채소 및 육류 등 물가상승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2.9%)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5만 3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함.
 - 가격 상승으로 채소 및 가공품, 육류 지출이 각각 17.2%, 9.5% 증가함.

- 2017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⁵⁾는 101으로 전년 동월(101)과 같고, 전월(97) 대비 4.1% 증가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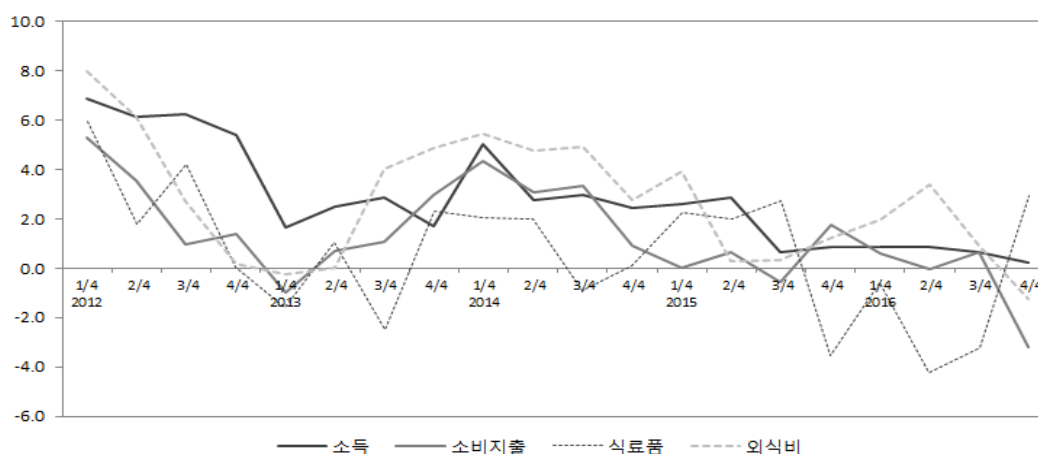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소득	1.6	2.6	2.9	0.7	0.9	0.6	0.8	0.8	0.7
(경상소득)	1.6	2.8	2.1	0.8	1.1	1.1	0.8	1.7	1.4
(비경상소득)	1.6	-2.1	25.9	-4.7	-4.8	-14.5	2.3	-21.4	-23.4
소비지출	0.5	0.0	0.7	-0.5	1.7	-0.5	0.6	0.0	0.7
(식료품·비주류음료)	0.8	2.3	2.0	2.7	-3.5	-1.3	-0.6	-4.2	-3.2
(의류·신발)	-4.4	-5.3	-3.4	-3.5	-5.2	-2.4	-1.8	-2.5	1.0
(교통)	-3.7	-4.5	-4.4	-12.5	6.7	-4.3	2.5	1.4	-2.2
(교육)	-0.4	-1.6	-1.6	-1.1	3.2	-0.4	-0.4	-0.7	1.3
(음식·숙박)	1.4	3.8	0.3	0.4	1.1	1.4	2.2	3.6	1.3

자료: 통계청

식료품 및 음식 소비지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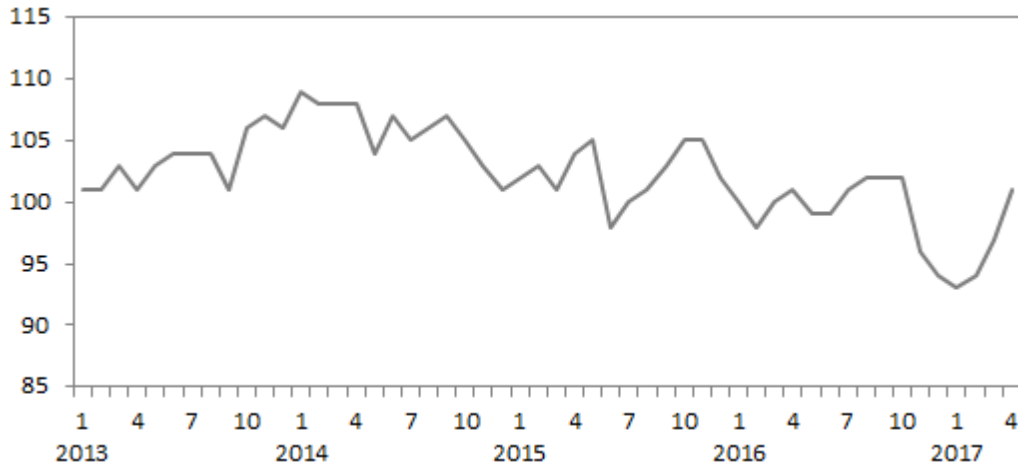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물가⁶⁾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100을 기준)는 102.7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함.
 - 농축산물은 채소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석유류는 작년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세 지속됨.
- 상품 및 서비스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0%, 2.1% 상승함.
- 2017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8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작황호전 등으로 전월 대비 약보합세이나, 지난해 3월에 더 큰 폭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로는 상승함.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는 3.9% 하락함.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7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2017.4.4.)」, 통계청 「2017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2017.4.4.)」, 한국은행 「2017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2017.4.19.)」와 「2017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2017.4.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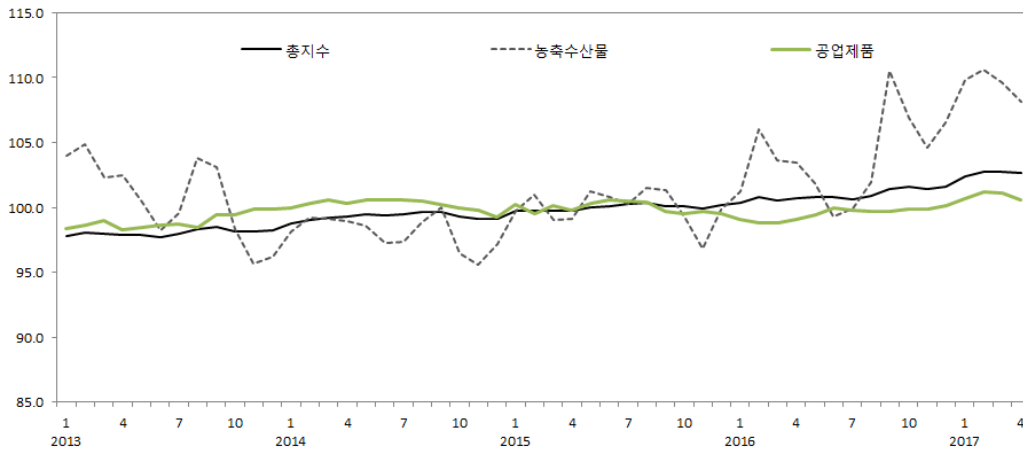
- 지출목적별로는 전월에 비해 주택·수도·전기·연료와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상승하였고, 의류·신발 등은 변동이 없음.
 - －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교육, 의류·신발, 보건 등은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전분기 대비 3.8% 상승함.
 -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전분기 대비 4.5% 상승함. 쌀값 하락으로 곡물류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채소류는 배추, 무 등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0.0 (0.7)	101.0 (1.0)	100.6 (0.9)	100.8 (0.8)	101.0 (0.7)	101.5 (1.5)	102.7 (2.1)
상 품	100.0 (-0.7)	99.4 (-0.6)	99.4 (-1.0)	99.2 (-1.0)	98.9 (-1.1)	100.2 (0.7)	101.4 (2.0)
농축수산물	100.0 (2.0)	103.8 (3.8)	103.7 (3.7)	101.5 (1.1)	104.2 (3.1)	106.0 (7.5)	110.0 (6.1)
공업 제품	100.0 (-0.2)	99.5 (-0.5)	98.9 (-1.1)	99.5 (-0.7)	99.7 (-0.5)	100.0 (0.4)	101.0 (2.1)
서 비 스	100.0 (1.8)	102.3 (2.3)	101.6 (2.4)	102.1 (2.4)	102.7 (2.2)	102.7 (2.1)	103.7 (2.1)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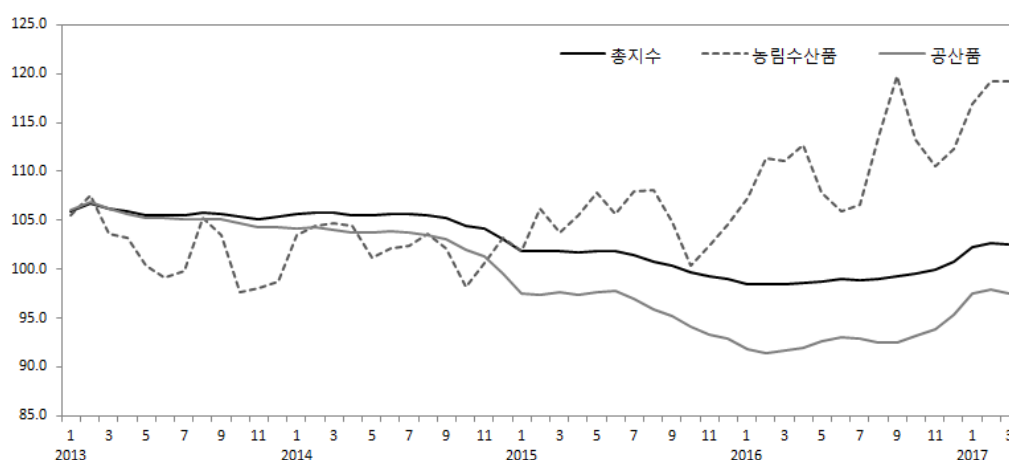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2016					2017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3.84	103.65	101.53	104.15	106.02	110.01	6.1	3.8
농산물	103.80	105.65	100.43	103.25	105.85	110.58	4.7	4.5
곡물	91.74	95.65	92.74	90.87	87.69	86.32	-9.8	-1.6
채소	116.93	119.03	107.02	118.00	123.68	126.44	6.2	2.2
-배추	169.62	114.66	169.06	230.11	164.64	145.78	27.1	-11.5
-무	148.44	113.80	139.12	146.94	193.92	169.49	48.9	-12.6
-양파	107.05	146.10	106.00	81.77	94.31	119.92	-17.9	27.2
-마늘	132.15	125.21	142.34	131.48	129.58	128.45	2.6	-0.9
-파	120.26	136.26	110.04	101.72	133.01	144.13	5.8	8.4
과실	98.36	98.69	98.53	96.63	99.61	109.80	11.3	10.2
축산물	104.40	101.14	102.88	106.64	106.93	109.85	8.6	2.7
수산물	102.86	101.67	102.70	102.28	104.78	108.34	6.6	3.4

자료: 통계청

- 생산자물가지수는 2016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7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2.5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4.1%, 2.4% 상승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상승세가 지속되어 2017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5.7% 상승(전년 대비 7.8% 상승)함.
- 공산품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6.5%, 3.7%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7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04.8로 전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함.
- 3월 수출물가지수는 104.5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가격이 내려 전월 대비 1.4%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4.8로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함. 3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4.5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3%, 3.5% 상승함.

- 2017년 1/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6.1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함.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83.5 (-5.2)	80.8 (-3.2)	98.7 (-2.6)	102.0 (-4.7)	102.6 (-8.5)	104.4 (2.8)	104.8 (5.9)	104.2 (5.0)	104.5 (4.9)
농림수산물	91.6 (-0.2)	101.9 (11.2)	98.7 (9.1)	102.0 (15.3)	102.6 (7.3)	104.4 (13.7)	104.8 (6.2)	104.2 (6.2)	104.5 (3.5)
농 산 물	145.8 (-1.0)	145.6 (-0.1)	145.6 (2.5)	143.4 (1.8)	152.8 (-0.6)	140.6 (-4.2)	139.8 (-4.0)	136.4 (-3.3)	140.9 (-2.8)
공 산 품	83.5 (-5.2)	80.7 (-3.4)	81.3 (-2.6)	79.8 (-4.8)	78.0 (-8.6)	83.5 (2.8)	86.1 (5.9)	86.0 (5.0)	84.9 (4.9)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7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3.2로 전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함.
- 2017년 3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 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전월 대비 2.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한 81.4임.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11.9% 상승함.
 - 원재료의 경우, 광상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3.7% 하락하고, 중간재와 자본재 및 소비재도 전월 대비 각각 1.7%, 0.7%, 0.4% 하락함.
- 2017년 3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6.5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80.4 (-15.3)	77.0 (-4.2)	75.8 (-7.1)	76.8 (-5.7)	75.0 (-7.7)	80.3 (4.0)	83.2 (9.8)	83.2 (9.2)	81.4 (6.8)
농림수산물	94.1 (-4.9)	93.8 (-0.3)	93.2 (-3.8)	93.4 (0.9)	91.9 (-3.5)	96.5 (5.2)	97.9 (5.0)	97.1 (3.1)	96.5 (5.5)
농 산 물	85.0 (-7.1)	82.2 (-3.3)	82.5 (-5.6)	82.2 (-2.1)	80.2 (-7.1)	83.9 (2.1)	86.8 (5.2)	86.6 (4.2)	85.1 (5.1)
축 산 물	115.0 (-4.9)	115.7 (0.6)	113.3 (-6.1)	113.7 (1.6)	114.9 (-0.1)	121.0 (7.7)	117.1 (3.4)	115.2 (0.2)	115.7 (3.5)
공 산 품	83.8 (-5.8)	83.1 (-0.8)	84.0 (0.6)	83.4 (0.1)	81.1 (-5.1)	84.2 (1.6)	85.8 (2.1)	85.6 (1.2)	84.3 (0.8)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17년 2월 중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3% 증가)함.
- 2017년 2월 중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3%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 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은 증가한 반면, 수익증권 등은 감소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7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7.4.11.)」와 「2017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2017.4.12.)」, 「2017년 1/4분기 외환시장 동향(2017.4.20.)」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2016												20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 ¹	20.7	19.4	18.8	18.0	16.2	15.9	13.8	13.0	12.9	12.5	12.5	12.4	11.7	9.7
M2 ²	8.1	8.3	7.8	7.0	6.7	7.1	6.9	7.2	6.9	7.1	7.3	7.5	6.9	5.9
M ³	8.9	8.9	8.6	8.0	7.7	7.9	7.6	8.0	7.8	8.1	8.2	8.1	8.0	7.4
본원통화 ⁴	15.9	15.8	14.6	17.3	15.5	14.4	11.4	14.1	12.3	12.3	11.8	12.0	12.3	11.3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7년 3월 국고채금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전후하여 전월 대비 4%p 상승함.
 - 회사채(3년)금리는 1월 이후 투자기관들의 자금운용 재계 등으로 다소 하락함.
 - 단기시장금리는 MMF 등 단기수신 증가의 영향으로 1월 대비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

	2016									20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1.47	1.46	1.33	1.22	1.24	1.31	1.36	1.61	1.69	1.64	1.67	1.71
회사채 ¹	1.49	1.49	1.28	1.23	1.23	1.24	1.23	1.23	1.22	1.24	1.23	1.23
CD유통수익률(91일)	1.61	1.58	1.43	1.36	1.35	1.34	1.35	1.42	1.54	1.50	1.49	1.48
콜금리 ²	1.94	1.91	1.79	1.65	1.65	1.70	1.78	2.02	2.16	2.10	1.23	1.23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17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1,154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원 하락하고, 원/100엔 환율은 43원 하락한 1,015원임.
 - 2017년 1/4분기 원/유로 환율은 1,230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원 하락하고

원/위안 환율 168원으로 1원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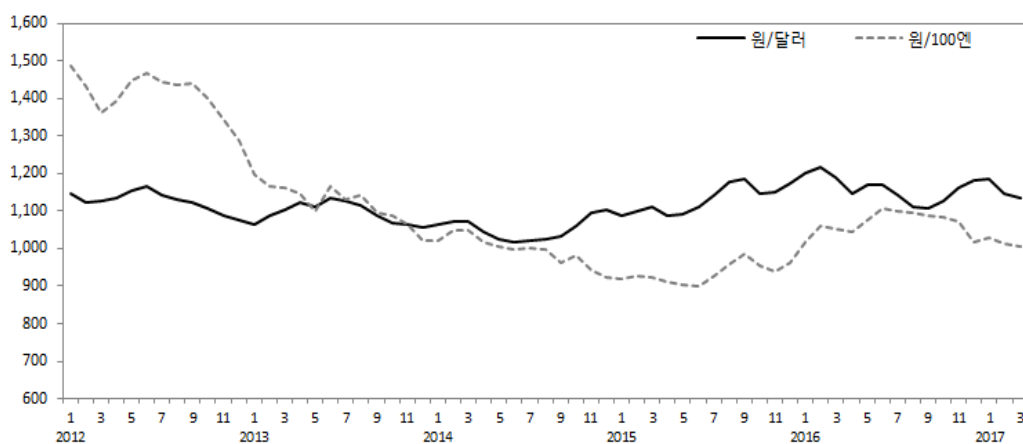
- 2017년 3월 원/달러 환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53원 하락한 1,135원을 나타냄.
 -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수출 호조 및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원화 환율 동향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131	1,161	1,201	1,163	1,121	1,157	1,154	1,185	1,145	1,135
원/100엔	935	1,068	1,043	1,076	1,095	1,058	1,015	1,030	1,013	1,004
원/유로	1,255	1,283	1,325	1,313	1,251	1,247	1,230	1,258	1,219	1,213
원/위안	180	174	183	178	168	169	168	172	167	165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2017년 1/4분기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와 프랑스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상존함.
-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상한파 등 일시적 요인으로 3월 고용지표는 부진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6	1.6	0.8	1.4	3.5	2.1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3	-0.2	0.2	0.2	-0.1	0.1	-
	소매판매(전기비)	2.3	3.0	0.0	1.5	0.9	1.7	0.6	0.1	-
	실업률(계절조정)	5.3	4.9	4.9	4.9	4.9	4.7	4.8	4.7	4.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1	1.1	1.8	2.5	2.7	-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9	6.7	6.7	6.7	6.7	6.8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5.8	6.1	6.2	6.1	-	6.3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2	10.2	10.5	10.6	-	9.5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2.1	2.1	1.7	2.2	2.5	0.8	-
일본	실질GDP(전기비)	1.2	1.0	0.5	0.5	0.3	0.0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5	-1.0	0.2	1.4	2.1	-0.4	2.0	-
	소매판매(전기비)	-0.3	-0.7	-1.3	0.0	0.5	1.5	0.2	0.2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0	-0.4	-0.5	0.3	0.4	0.3	-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2.0	1.7	0.5	0.3	0.4	0.4	-	-	-
	산업생산(전기비)	2.1	1.4	0.9	-0.1	0.4	0.9	0.9	-	-
	소매판매(전기비)	2.7	1.9	0.7	0.4	0.3	0.8	0.1	0.7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0	-0.1	0.3	0.5	1.8	2.0	-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7.5)」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중국 경제는 2017년 1~2월 자동차 판매량 감소로 소매판매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지표가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됨.
- 일본 경제는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의 수출확대 영향으로 2월 수출이 크게 개선되고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모두 증가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됨.
- 유로존 경제는 생산과 소비 등 경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제조업 PMI(구매관리자 지수) 상승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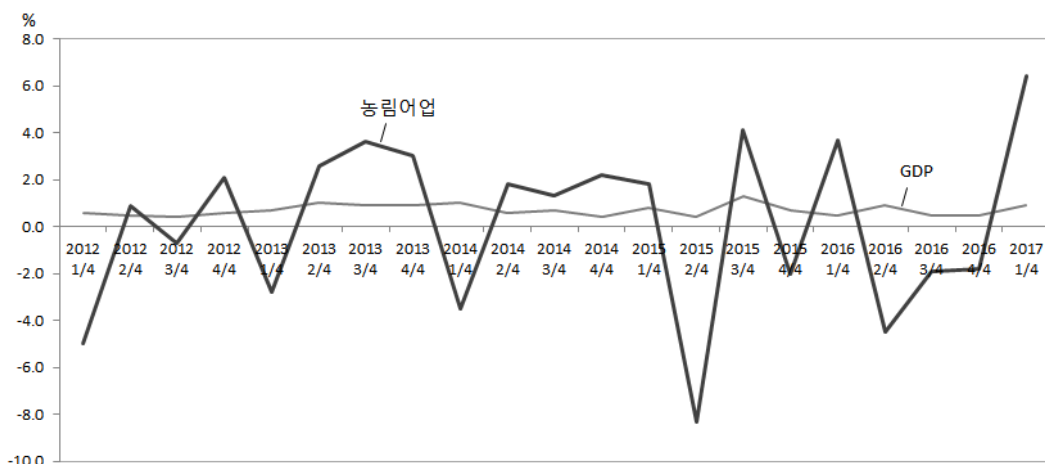
Ⅱ. 농촌경제 동향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17년 1/4분기 7조 2,95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4% 성장함.
-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83조 5,99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9% 성장함.
- 2016년 1/4분기는 7조 4,55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7% 성장한 이후 최근 3분기 동안 침체되었으나, 2017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임.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6년과 2017년 1/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노수정 연구원(nosu303@krei.re.kr), 박동규 명예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7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 2016년 4/4분기 대비 9.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채, 과실, 축산류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곡물과 채소류는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비슷한 95.0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7.6% 하락함.
 - 미곡(일반미, 찰쌀)은 전년 동기 대비 12.4% 하락한 반면, 두류/잡곡은 팔, 검정콩, 콩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36.5%, 전분기보다 17.0% 상승함.
 - 서류는 고구마, 감자의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1%, 전분기 대비 23.2%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2로 전년 동기보다 12.6%, 전분기보다 9.2% 하락함.
 - 엽채류는 배추, 양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5% 하락, 전분기에 비해 25.7% 하락함.
 - 마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반면, 고추, 양파, 생강, 풋고추 등이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조미채류는 전년 동기 대비 41.9%, 전분기 대비 32.3% 하락함.
 - 과채류는 호박, 딸기, 방울토마토 등의 품목에서 하락이 있었지만 다수 품목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4.7% 상승하고 전분기보다 22.8% 상승함.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57.0으로 배와 복숭아가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사과와 감귤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8%, 전분기 대비 55.9% 상승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전분기 대비 4.0% 상승함.

- 가축은 돼지와 가금류(닭, 오리)는 상승한 반면, 한우 및 육우 축종의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5.3% 하락하였으나, 계란과 우유 등 유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전년과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9.8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는 1.2%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구 분	가중치	2015	2016	2015	2016	2016	2017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3.8	113.4	112.9	123.7	116.6	127.3	2.9	9.2
곡물	280.1	109.6	99.4	106.4	102.8	95.3	95.0	-7.6	-0.3
-미곡	234.3	112.7	100.1	108.9	103.4	93.7	90.6	-12.4	-3.3
-맥류	5.5	144.0	146.8	150.7	140.8	157.2	134.6	-4.4	-14.4
-두류/잡곡	23.9	73.3	80.9	79.5	84.9	99.1	115.9	36.5	17.0
-서류	16.4	106.9	100.3	95.4	107.7	91.9	113.2	5.1	23.2
청과물	406.5	121.3	123.6	118.7	149.8	133.9	157.9	5.4	17.9
-채소	268.9	103.2	107.4	102.0	122.7	118.1	107.2	-12.6	-9.2
-과실	137.6	156.6	155.4	151.3	202.7	164.9	257.0	26.8	55.9
축산물	252.6	107.3	113.5	110.4	108.3	113.5	118.0	9.0	4.0
-가축	185.1	104.2	115.7	111.1	111.4	110.8	105.5	-5.3	-4.8
-유란	67.5	115.9	107.4	108.6	99.6	120.9	152.4	53.0	26.1
기타농산물	60.8	110.9	108.8	114.9	109.2	111.1	109.8	0.5	-1.2
-특용작물	42.4	120.2	117.0	124.0	114.2	118.3	116.1	1.7	-1.9
-화훼	15.3	89.5	90.7	95.9	100.6	94.8	94.2	-6.4	-0.6
-부산물	3.0	88.6	86.2	84.5	84.3	92.2	100.8	19.6	9.3

자료: 통계청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7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0.1로 전년 동기 대비 1.5%, 전분기 대비 0.5%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10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전분기 대비 0.5% 하락함.
 - 영농광열비와 농기구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1.5%, 6.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 비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4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였고, 농기계 임차료는 1.6%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0=100)

구 분	가중치	2015	2016	2015	2016	2016	2017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9.0	109.3	109.1	108.5	109.6	110.1	1.5	0.5
가계용품	576.0	108.1	109.3	108.2	108.7	110.0	111.3	2.4	1.2
농업용품	376.9	107.3	105.6	107.3	104.8	104.8	104.3	-0.5	-0.5
-종자	29.3	139.3	133.6	139.3	133.8	133.5	122.2	-8.7	-8.5
-비료	39.0	80.1	63.5	80.1	63.5	63.5	60.2	-5.2	-5.2
-농약	29.9	124.2	123.3	124.2	123.3	123.3	120.4	-2.4	-2.4
-농기구	64.0	119.5	119.9	119.5	119.5	121.3	127.0	6.3	4.7
-영농광열	26.7	85.3	71.0	82.3	67.0	74.5	81.4	21.5	9.3
-가축	51.3	101.6	122.2	106.5	114.7	115.3	113.8	-0.8	-1.3
-사료	125.0	106.0	102.0	104.8	103.8	101.0	100.2	-3.5	-0.8
-영농자재	11.7	95.8	96.2	94.6	96.2	96.2	94.4	-1.9	-1.9
농촌임료금	47.1	134.6	140.2	135.8	136.8	142.6	142.3	4.0	-0.2
-농업노동임금	44.9	135.2	141.0	136.4	137.5	143.5	143.1	4.1	-0.3
-농기계임차료	2.2	122.5	123.6	122.5	122.6	124.6	124.6	1.6	0.0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7년 1/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107.8임.
- 2017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전분기 대비 8.7%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농업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전분기 대비 과실 및 축산물 등의 판매가격지수가 9.2% 상승하여 농가경영 조건은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15	2016	2016	2017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2.9	123.7	116.6	127.3	2.9	9.2
농가구입가격(B)	109.1	108.5	109.6	110.1	1.5	0.5
농업투입재가격	111.0	107.5	108.1	107.8	0.2	-0.3
농가교역조건(A/B×100)	103.5	114.0	106.4	115.6	1.4	8.7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7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0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20.6% 감소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전분기 대비 1.4%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5만 5천 명, 여성은

8.4% 감소한 35만 8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9%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14.3% 감소한 132만 9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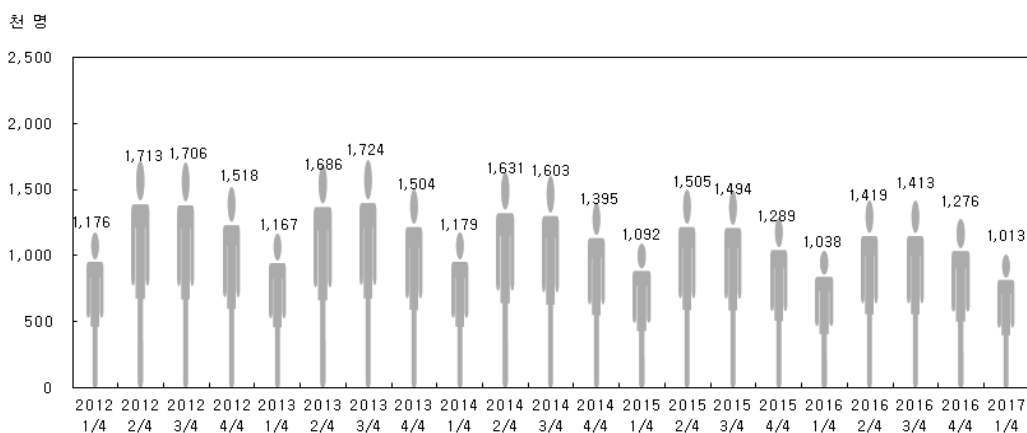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6		2017	증감률(%)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계절조정)	25,554 (26,156)	26,446 (26,391)	25,915 (26,522)	1.4 1.4	-2.0 0.5
	농림어업 (계절조정)	1,038 (1,307)	1,276 (1,295)	1,013 (1,277)	-2.4 -2.3	-20.6 -1.4
	남성	647	745	655	1.2	-12.1
	여성	391	531	358	-8.4	-32.6
	농가	1,397	1,551	1,329	-4.9	-14.3
	농가남성	832	879	807	-3.0	-8.2
	농가여성	565	673	522	-7.6	-22.4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141만 3천 명, 4/4분기 127만 6천 명, 2017년 1/4분기 101만 3천 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1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함.
- 곡류(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반면, 축산물은 39.5% 감소함. 한편, 임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38.2%로 크게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72	1,599	860	1,476	1,026	1,750	1,000	1,642	16.3	11.3
농산물		738	1,370	658	1,295	756	1,500	743	1,459	12.9	12.6
-곡류		10	8	9	8	11	9	49	17	427.4	125.2
-과실류		47	98	35	67	47	100	31	61	-11.8	-9.0
-채소류		36	84	26	82	27	92	21	86	-18.0	5.2
축산물		33	128	27	99	33	129	17	78	-39.5	-21.9
-포유육류		2	11	1	8	2	10	1	3	-57.7	-64.2
-가금육류		9	13	7	10	8	12	1	3	-89.8	-69.8
-낙농품		9	46	7	34	10	55	8	35	10.2	3.9
임산물		200	101	174	81	121	18	241	106	38.2	31.0
수 산 물		163	496	131	435	158	563	115	482	-12.4	10.8
전 체		1,135	2,094	991	1,911	1,184	2,313	1,115	2,124	12.5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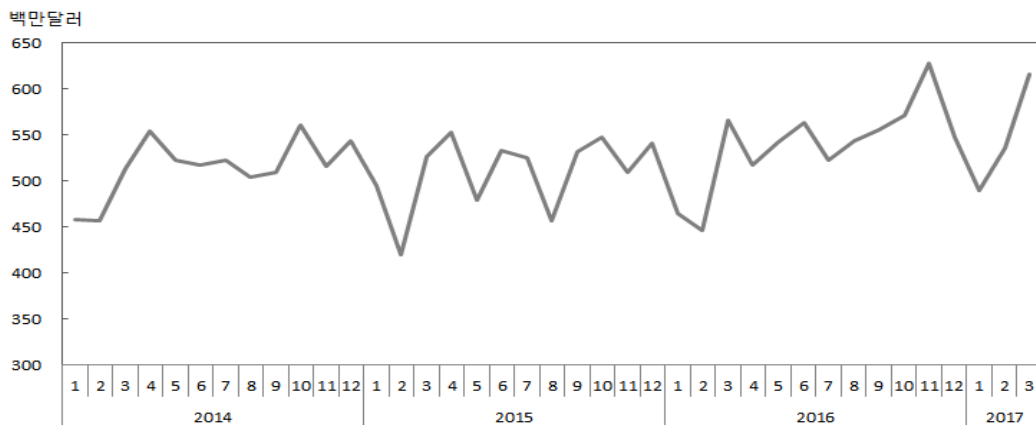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함.
- 수출액은 농산물과 임산물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2.6%, 31.0% 증가한 데 반해 축산물은 21.9% 감소함.
- 농산물에서 곡류와 채소류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과실류의 경우 사과, 유자 등의 수출액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구제역, AI 등 질병 발생으로 포유육류와 가금육류는 하락

하였으나, 낙농품은 연유, 치즈 등의 수출액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 2017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1월에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8.7%, 2월 대비 15.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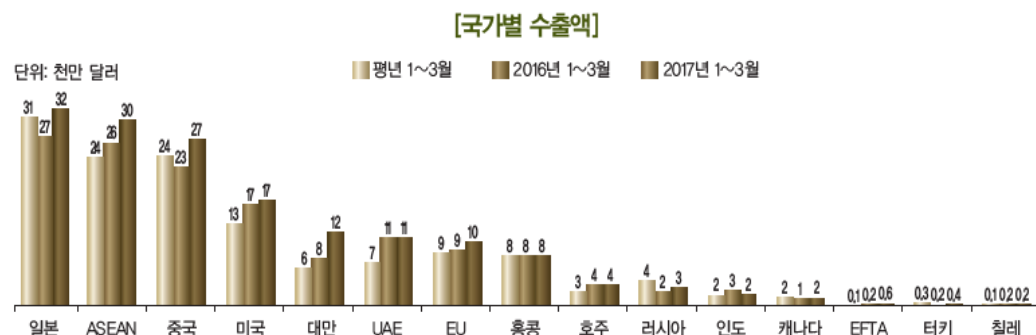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주요 수출 대상국 중 일본, ASEAN, 중국, 미국, EU, 호주 등으로의 누적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 그 중 對일본 수출액(16.7%)이 가장 크게 증가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1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7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04.2로 전분기(84.4) 대비 상승하여 수출경기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¹⁰⁾.
 - 이는 수출상담, 수입상품 제조원가를 중심으로 수출대상국과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4.2. 수입 동향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306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0%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은 3.9%, 축산물은 10.7%, 임산물은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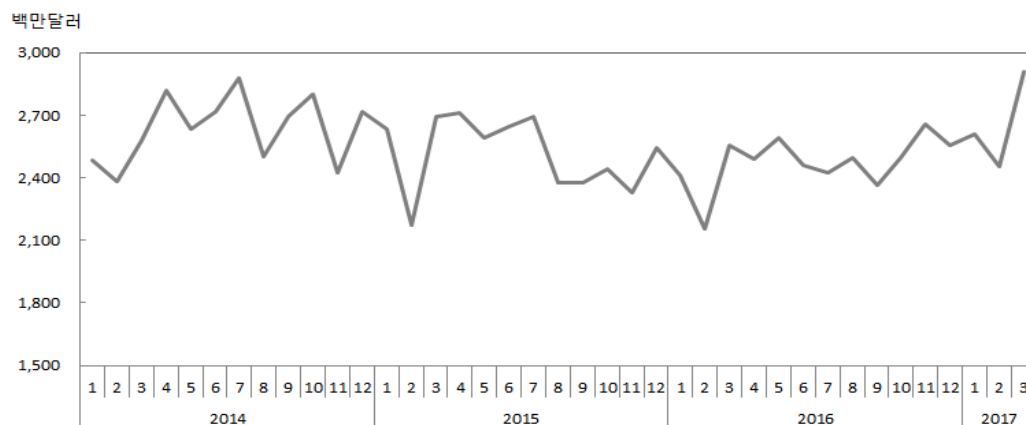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2016		2017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047	7,314	12,098	7,128	13,041	7,709	13,064	7,968	8.0	11.8
농 산 물	8,738	4,388	8,022	4,215	8,688	4,662	8,336	4,681	3.9	11.1
-곡류	4,041	945	3,487	775	3,866	897	3,580	829	2.7	6.9
-과실류	211	287	301	444	233	338	339	519	12.6	16.9
-채소류	361	277	277	218	321	288	313	232	13.0	6.6
축 산 물	339	1,278	379	1,398	386	1,471	419	1,668	10.7	19.3
-포유육류	189	750	233	935	222	928	258	1,141	10.6	22.0
-가금육류	33	82	27	62	39	82	34	71	27.4	14.8
-낙농품	59	190	60	181	73	215	74	236	23.8	30.2
임 산 물	3,969	1,647	3,698	1,515	3,967	1,576	4,309	1,620	16.5	6.9
수 산 물	1,639	1,235	1,182	1,147	1,406	1,344	1,265	1,263	7.0	10.1
전 체	14,686	8,549	13,281	8,275	14,447	9,053	14,330	9,231	7.9	11.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0) 한국무역협회, '2017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7.03.30).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9억 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함.
 -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축산물과 임산물도 각각 19.3%, 6.9%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는 쌀, 보리, 밀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함. 채소류 수입액은 양배추와 김치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키위, 포도, 망고, 바나나 등의 수입액 증가로 전년보다 16.9% 증가함.
- 2017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9억 57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하고 2월 대비 18.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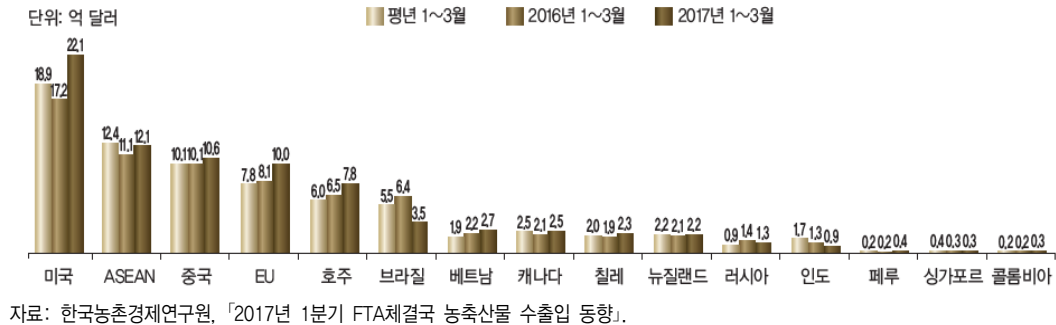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1/4분기 미국, ASEAN, 중국, EU,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산(29.0%)이 가장 크게 증가함.
 - 부류별 누적수입액은 곡물이 전년 동기 대비 5.6%, 과일채소 13.4%, 축산물 19.0%, 임산물 2.6%, 가공식품 15.2%로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4.3. 순수입 동향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206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물량은 759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40만 2천 톤임.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3억 2,600만 달러임.
 -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임산물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6년 1/4분기		2017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239	5,652	12,064	6,326	7.3	11.9
농 산 물	7,364	2,919	7,593	3,222	3.1	10.4
축 산 물	351	1,298	402	1,590	14.6	22.5
임 산 물	3,524	1,434	4,068	1,514	15.5	5.5
수 산 물	1,051	713	1,151	781	9.4	9.6
전 체	12,290	6,364	13,215	7,107	7.5	11.7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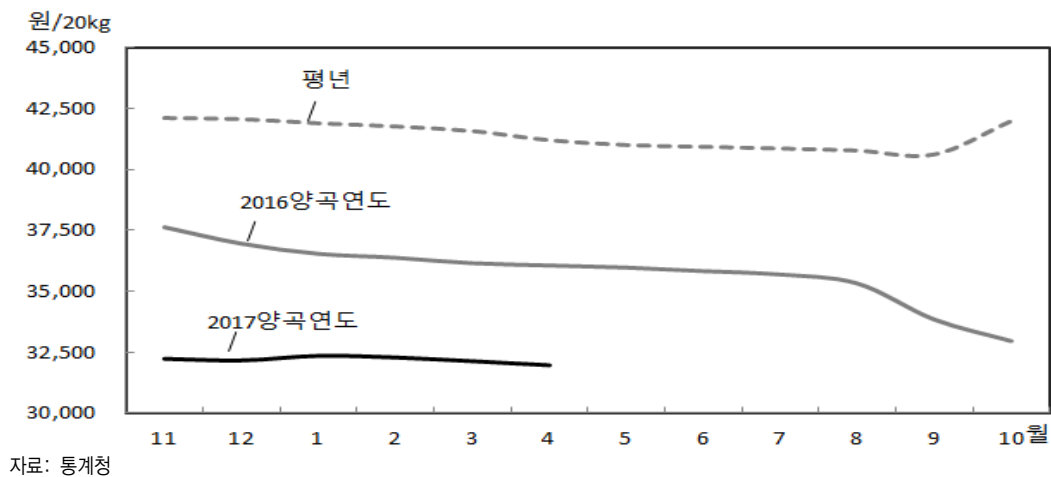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 2017년 1/4분기 동향
 - 약보합세가 지속되던 2016년산 쌀 가격은 조기 시장격리 효과로 수확기 이후 보합세로 전환되었음.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in@krei.re.kr), 윤종열(jyyoon0712@krei.re.kr),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윤승원(yse887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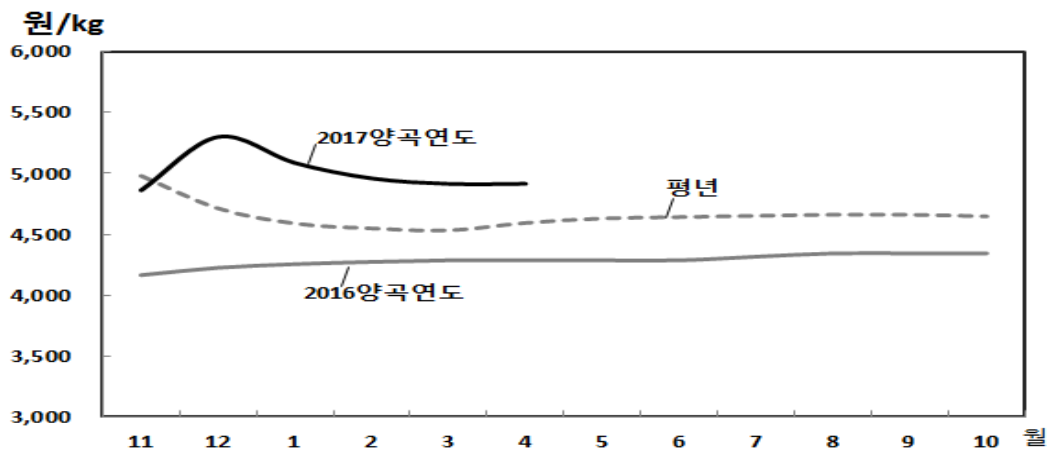
- 다만, 재고가 많은 일부 업체들의 저가출하와 소비지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등으로 3월부터 가격은 약보합세로 전환됨.
- 2016년산 3월 평균 쌀 가격은 3만 2,133원/20kg으로 전년과 수확기 대비 각각 11.1%, 1.0% 하락하였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4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3만 1,948원/20kg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하였음.
- 수확기 초기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업체 재고(3월 말 기준)는 전년 대비 1.7% 많고 원료곡 가격도 전월보다 4.1% 하락(1,500원 상당) 한 35,500원/40kg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향후 큰 폭의 쌀값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7년산 농가 벼 재배의향 면적은 75만 6천ha로 전년 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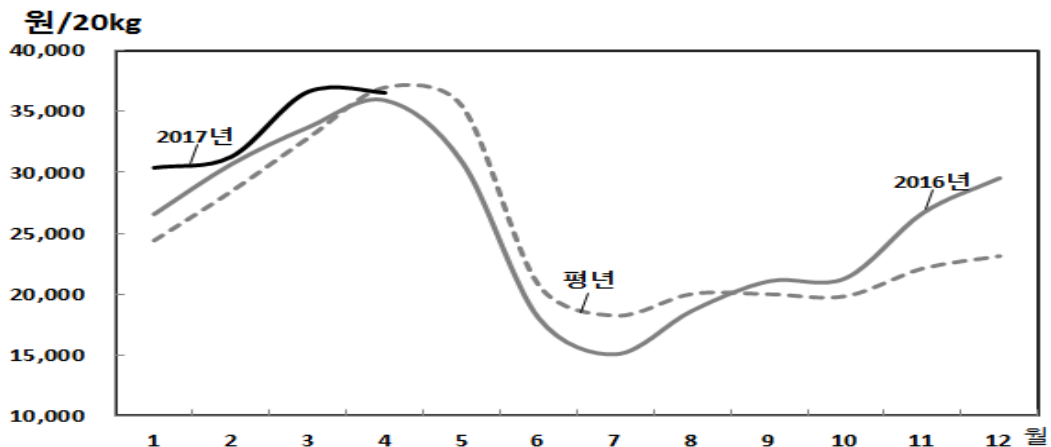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경기 침체에 따른 콩 가공품 소비 감소로 콩 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콩 가격은 2017년 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2월 중순 이후 kg당 4,914원이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4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4,914원/kg이었음.
 -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산 콩 가격은 약 보합세 전망
 - 다만, 2016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체 시장 공급량이 적고, 산지 유통업체들이 수확기 때 필요 물량을 모두 확보하지 않은 점 등 국산 콩 가격 상승요인도 존재

1.3. 감자

감자(수미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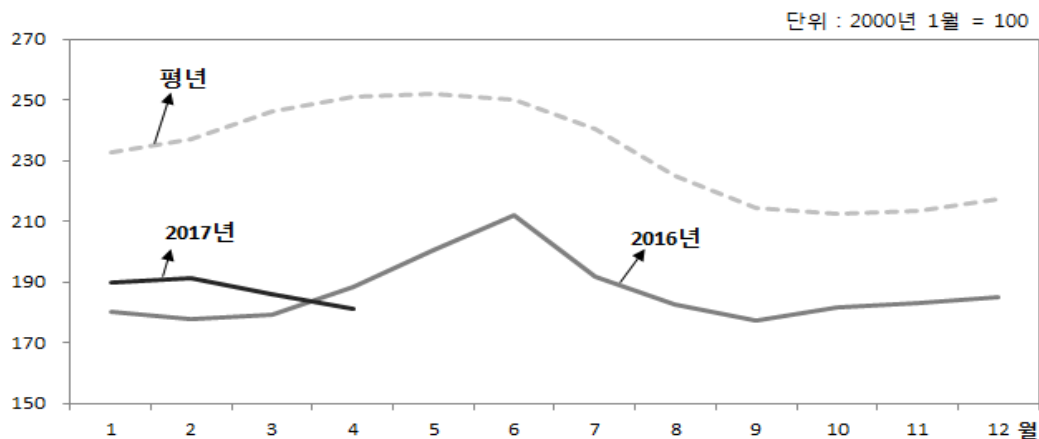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수미 평균 도매가격은 20kg당 32,754원(상품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평년 동기 대비 14.7% 높은 수준임.
 - 고랭지 감자 품위저하,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 등으로 2016년 8월부터 상승세가 지속됨.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미 도매가격은 20kg당 36,791원(4.1~4.28일 가격 평균)으로 전월(36,610원)과 비슷한 수준임.
 - 2017년 노지 봄 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1.5%)할 것으로 조사됨.
 - 감자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봄 감자 출하가 2/4분기에 이루어지므로 2/4분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7년 1/4분기 동향
 - 2017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 상승한 189.0임.
 - 세계 밀 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 바이오 연료 소비량 증가에 따른 옥수수 기말재고량 하향조정, 남미 곡물 주산지의 기상상황 악화 등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다만, 달러화 강세 지속과 3월 상순 이후 주요 곡물 수급 및 남미 기상상황 개선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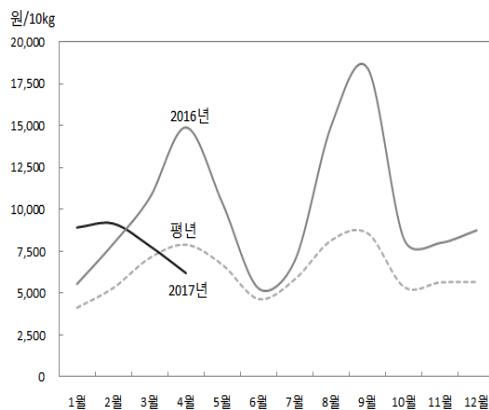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4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남미지역의 풍부한 공급 여건과 미국의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밀 생육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월 대비 2.8% 하락한 181.0임.
 - 주요 곡물의 양호한 수급상황과 달러화 강세 전망 등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5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¹²⁾는 -1.96으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 단계가 전망됨.
 - 2017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주요 곡물의 풍부한 공급여건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전 분기 대비 1.4% 하락한 186.4로 전망됨.
 - 그러나 2/4분기에는 곡물의 생육상황이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웨더마켓(weather market) 시즌이 시작되므로 향후 곡물 주산지의 기상상황에 따라 가격변동 가능성이 존재함.

1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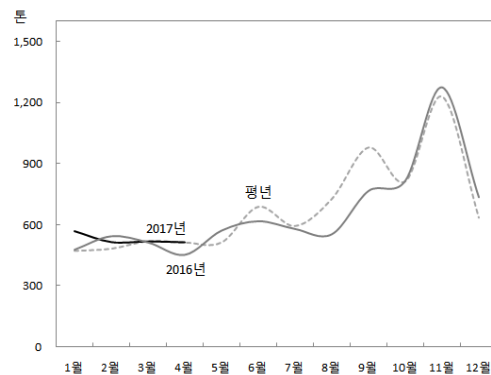
2. 엽근채소¹³⁾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 평년보다 31% 높았으나, 저장출하기(3~4월) 겨울배추 저장량 증가로 작년보다는 18% 하락
 - 겨울배추 노지 출하기 가격은 1월 8,909원/10kg, 2월 9,163원으로 겨울배추 출하량 감소로 강세를 보였으나, 3~4월 가격은 겨울배추 저장량 증가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7,000원까지 하락

* 1/4분기 가격: (2017년) 8,081원/10kg, (2016년) 9,768원, (평년) 6,11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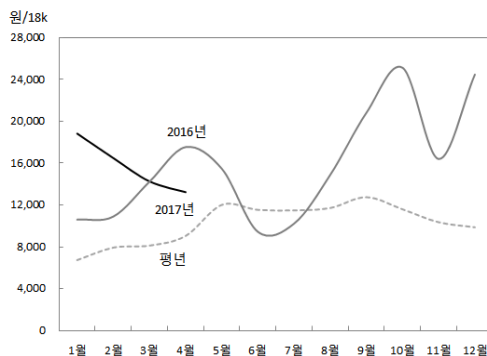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 전문연구원(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규(cafe02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봄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8%, 6% 증가한 23만 톤으로 전망
 - * 봄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20% 증가한 2,547ha
 - * 봄배추 단수: 큰 일교차로 인한 결구지연과 출하지연으로 작년보다 2% 감소하나, 평년 보다는 5% 증가한 9,104kg/10a
 - 2017년 2/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시설 및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 2/4분기 출하량은 봄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많을 전망. 특히 출하가 지연되었던 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4~5월로 갈수록 출하량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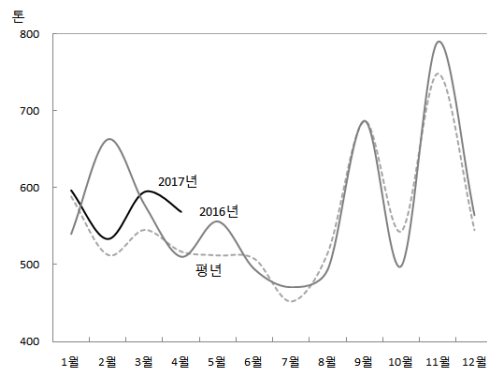
- 2017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7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는 작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6% 내외 증가 전망
 - * 준고랭지 1기작 주산지(방림, 둔내)는 작년보다 증가한, 작년 선충피해를 입었던 삼척, 태백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 * 준고랭지 1기작 평균 포전거래 가격은 평당 6,500원/평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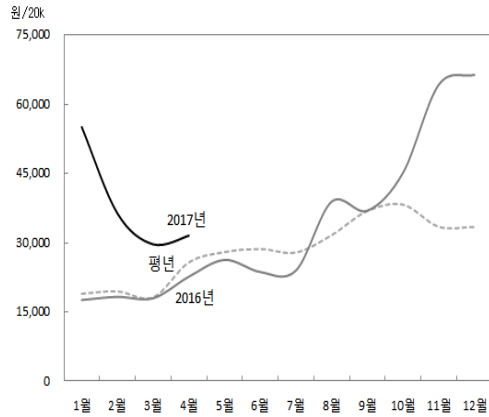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9% 높은 16,700원/18kg임
 - 1/4분기 가격은 월동무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수준
 - * 2017년 가격: (1월) 18,850원/18kg, (2월) 16,460원, (3월) 14,250원
 - * 1/4분기 가격: (2017년) 16,700원/18kg, (2016년) 12,030원, (평년) 8,090원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산 월동무 저장량은 2015년산보다 35% 적은 약 3만 4천 톤 전망
 - 2017년 시설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13% 증가한 1만 3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158ha
 - * 단수는 작년보다 3% 감소한 8,408kg/10a
 - * 작황은 조기 정식, 5월 고온에 따른 생육 불균형, 조기 출하 등으로 작년보다 부진
 - 2017년 노지봄무 생산량 작년보다 11% 증가한 9만 4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9% 증가한 973ha
 - * 단수는 작년보다 2% 증가한 9,600kg/10a
 - 2/4분기 무 출하량은 월동무 저장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감소 전망
 - * 4~5월은 시설봄무 출하량이 많으나,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
 - * 6월은 터널봄무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작년보다 6% 증가
 -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14,200원/18kg)보다 높을 전망
 - * 4~5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으나, 6월부터 출하량이 증가하여 하락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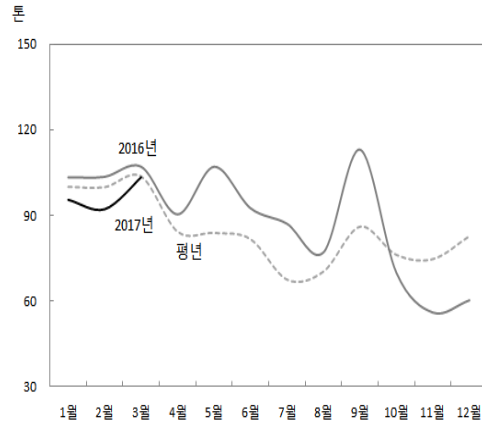
- 2017년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6% 증가 전망
 - 2017년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한 2,768ha
 - * 작년 출하기(8~10월)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 증가 예상
 - * 한편, 강릉 등 일부 주산지에는 위황병(시들음병) 확산으로 재배면적 증가 제한적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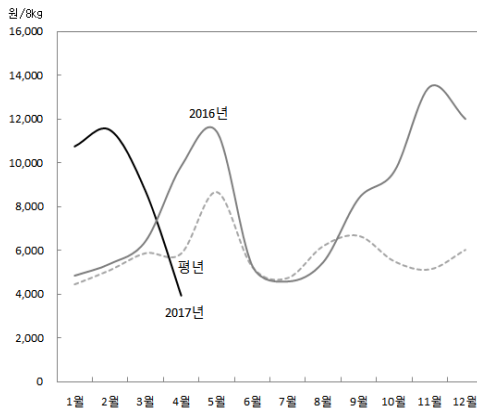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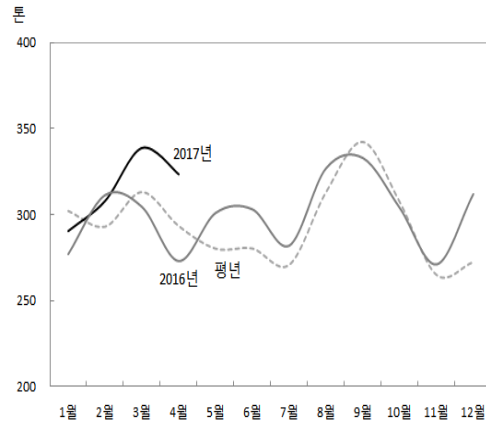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생산량이 태풍피해로 인해 감소폭이 커져 작년과 평년보다 높게 형성
 - 1/4분기 당근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40,21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124%, 113% 상승
 - * (2017년 1/4분기) 17,930원/20kg, (평년 1/4분기) 18,890원/20kg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저장량이 평년보다 적으나 봄당근 생산량이 증가하여 상품 20kg 기준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 (2017년 2/4분기) 24,500원/20kg, (평년 2/4분기) 28,150원
- 2017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
 - 2017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7% 증가할 전망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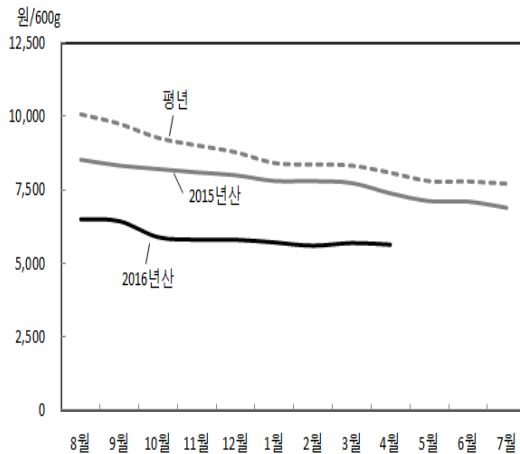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2~2016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겨울양배추 생산량이 태풍 피해로 인해 감소폭이 커져 작년과 평년보다 높게 형성
 - 1/4분기 양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10,21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82%, 98% 상승
 - * (2017년 1/4분기) 5,580원/8kg, (평년 1/4분기) 5,150원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도매가격은 겨울양배추 저장량이 평년보다 적으나 봄양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상품 8kg 기준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 (2017 2/4분기) 8,850원/8kg, (평년 2/4분기) 6,850원
- 2017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
 - 2017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6%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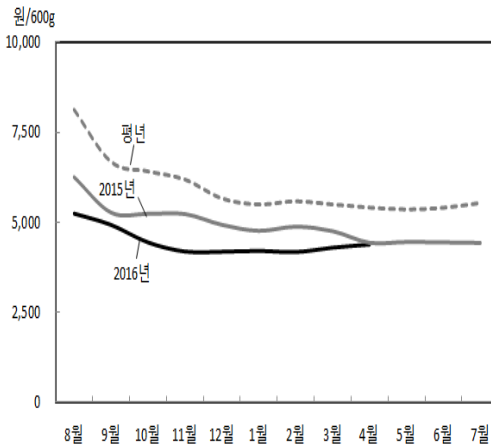
3. 양념채소¹⁴⁾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1년 8월~2016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7년 1/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1/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27%, 32% 낮은 5,667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2% 낮은 4,22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5,667원/600g, (전년) 7,781원, (평년) 8,371원

* 산지가격: (금년) 4,220원/600g, (전년) 4,794원, (평년) 5,521원

- 2016년산 생산량 감소로 공급량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은 전년보다 많았음.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연구원이 작성함.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4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4% 낮고, 전월과 비슷한 5,635원임.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월 대비 각각 1%, 19% 낮은 4,378원임.
 - 건고추 2/4분기 도매가격은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 증가로 2016년 2/4분기(7,201원/600g)보다 낮고 1/4분기(5,667원) 대비 보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건고추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2016년산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지속된 건고추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콩(땅콩 포함), 깨, 옥수수 등으로 작목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 지역별로는 영남이 13%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충청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재배방식별로는 멀칭과 터널재배가 2016년산 대비 각각 13%, 7% 감소하고, 비가림(하우스) 재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2017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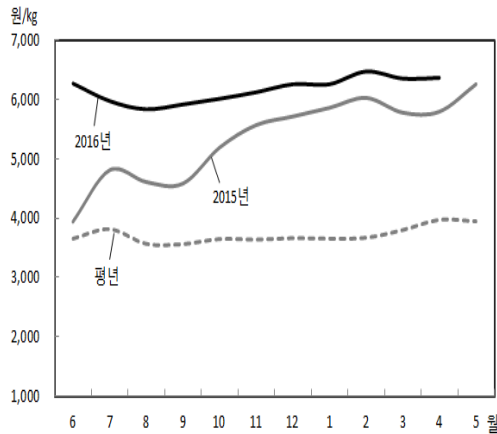
단위: %

	노지재배		비가림재배	전체
	멀칭	터널		
경기·강원	-10.2	0.0	-0.4	-9.3
영 남	-14.1	-9.7	-0.3	-13.0
호 남	-14.1	-6.7	-3.1	-10.7
충 청	-13.3	-4.3	-0.2	-11.3
전 체	-13.2	-7.0	-0.9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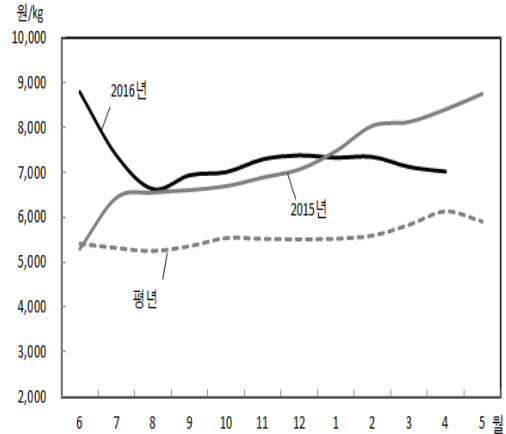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3.2. 마 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1년 6월~2016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간마늘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재고량 증가와 정부 수입비축물량 방출로 전년 동기보다 8% 낮은 수준이었음.

* 난지형 도매가격: (금년) 6,169원/kg, (전년) 5,346원/kg, (평년) 3,718원/kg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7,293원/kg, (전년) 7,193원/kg, (평년) 5,573원/kg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간마늘 도매가격은 2016년산 재고량 증가로 전년 대비 17% 낮은 kg당 7,003원이었음.
- 5~6월 간마늘 가격은 국내산 마늘 재고량과 2017년산 마늘 생산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16년산 국내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약 1만 2천 톤으로 평년보다 10% 적으나, 전년보다 18% 많은 수준임.

2016년산 국내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6		92,973	79,117	1,560	12,295
2015		85,576	74,133	1,001	10,442
평년		107,000	92,000	1,358	13,643
증감률	전년 대비	8.6	6.7	55.8	17.7
	평년 대비	-13.1	-14.0	14.9	-9.9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6년산 11.3%, 2014년산 8.8%, 평년 9.1%)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농협의 수매·비축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되었으며, 정부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3. 재고량과 출고량은 4월 말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7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평년과 비슷한 24,864ha(통계청, 4월 27일).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5,304ha, 난지형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19% 증가한 19,560ha

- 2017년산 마늘 생육은 기상여건 양호로 회복세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4. 20), 2016년산 마늘 생육은 전년 대비 ' 좋음 ' 21%, ' 비슷 ' 57%, ' 나쁨 ' 22%

* 파종기 강우 및 3월 가뭄 영향 있었으나, 4월 기상여건이 좋아 2017년산 마늘 생육은 양호한 수준

2017년산 마늘 전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체
경기·강원	16.7	66.7	16.7	100.0
충청	26.4	55.4	18.2	100.0
호남	26.2	62.0	11.8	100.0
영남	15.3	54.0	30.7	100.0
제주	15.3	54.2	30.6	100.0
전체	21.2	57.1	21.6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17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평년 대비 증가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4. 20), 2017년산 마늘은 파종기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육 상황이 회복되고, 단위당 수확량이 많은 난지형 대서종 마늘 위주로 재배 면적이 늘어 평년보다 1% 내외 증가 전망
- * 2017년산 마늘 10a당 예상단수는 조사치를 활용할 경우 1,308kg, 농업관측본부 단수예측 모형은 1,339kg 추정

2017년산 마늘 단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0.3	-0.4	0.4	0.6	-	0.2
난지	0.0	-0.7	-1.3	-1.8	-3.6	-1.8
전체	0.3	-0.6	-1.2	-1.4	-3.6	-1.5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7년산 마늘 생산량 전년 대비 19% 내외 증가 전망

- * 2017년산 마늘 예상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2% 많은 33만 톤 내외 전망
- * 한지형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25% 증가할 전망

2017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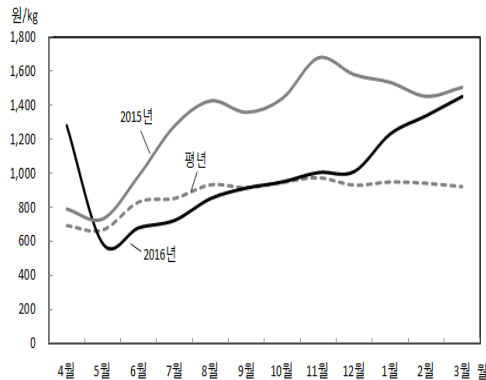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		24,864	1,308~1,339	325.2~332.9
2016		20,759	1,327	275.5
평년		24,831	1,305	324.0
증감률	전년 대비	19.8	-1.5~0.9	18.0~20.8
	평년 대비	0.1	0.2~2.6	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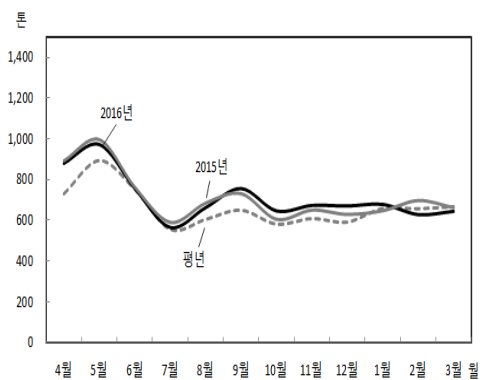
주: 2017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4월~2016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재고량이 많아, 전년 대비 11% 낮은 상품 kg당 1,340원이었음.
 - 월별가격은 1월 1,230원에서 2월 1,340원, 3월 1,450원으로 전월 대비 평균 9%씩 상승함. 이는 양파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았으나, 평년보다는 적어 출하조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2017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7년산 양파의 전체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2% 감소한 1만 9,538ha(통계청, 4월 27일).
 - 2017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6년산보다 2~5% 감소한 123만 8천 톤~126만 7천 톤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는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한 17만 9천 톤, 중만생종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105만 9천~108만 8천 톤으로 전망됨.
- * 2017년산 조생종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2016년산보다 2% 증가한 6,392kg, 중만생종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6,325~6,500kg이 전망됨. 따라서 양파 전체 단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6,335~6,485kg으로 전망됨.

2017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단위: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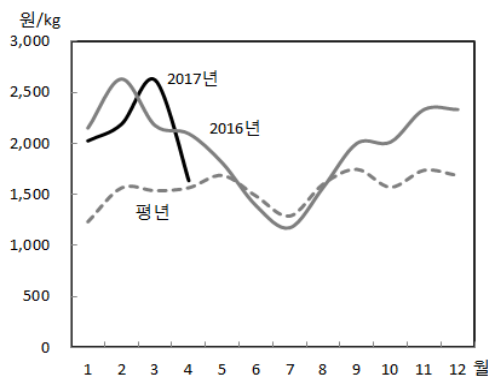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		19,538	6,335~6,485	1,238~1,267
2016		19,896	6,528	1,299
평년		20,157	6,251	1,260
증감률	전년 대비	-1.8	-3.0~-0.7	-4.7~-2.4
	평년 대비	-3.1	1.3~3.7	-1.8~0.5

주: 2017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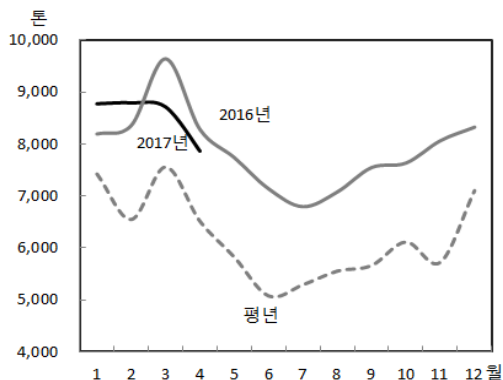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조생종 출하집중과 수입산 반입량 증가로 전월(1,450)보다 26% 하락한 kg당 1,070원이었음.
 - 5~6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633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2년 1월~201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2,277원(중품 1,915원)으로 전년보다 2% 낮았으나, 평년보다 58% 높았음.
 - * (금년) 2,277원/kg, (전년) 2,318원, (평년) 1,444원
 - * (1월) 2,024원/kg, (2월) 2,188원, (3월) 2,620원
 - 1~3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평년 대비 22% 많았음. 1~2월 반입량은 전년보다 많았으나, 3월은 전년 대비 10% 적었음.
 - 3월 가격은 겨울대파 재배면적 감소와 초기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출하량이 감소하여 크게 상승하였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1,634원/kg으로 전년과 전월보다 각각 21%, 37% 낮았음. 출하량은 전년보다 적었으나, 추대 발생이 많아 전반적인 품위가 좋지 않았고 신선 대파 수입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하락세를 나타냄.
 - 2/4분기 출하량은 겨울대파 출하 종료로 4월까지 출하량은 감소하나, 봄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5월부터 출하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가격은 경기, 호남 봄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됨.
 - 3~6월 대파 정식의향 면적은 전년 출하기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호남은 전년 포전거래가격 상승으로 벼, 배추, 울금 등에서 대파로 작목 전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기·강원은 무, 감자 등에서 작목 전환되어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6월 정식의향면적(7월~내년 5월 출하분)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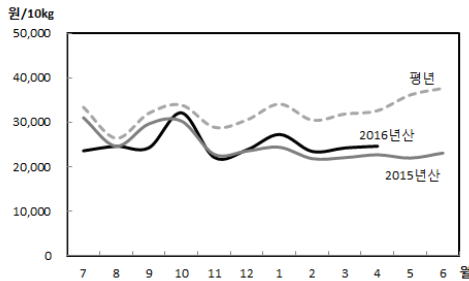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9.8	1.2	15.6	2.6	12.7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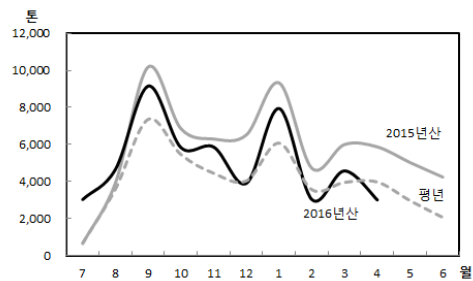
4. 과일¹⁵⁾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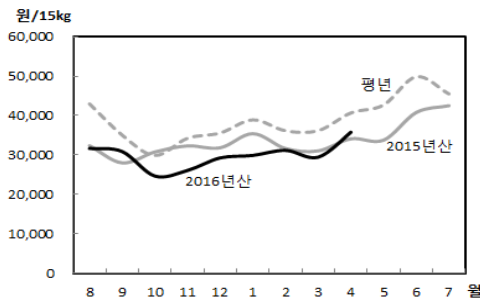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저장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보다 10%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천 원이었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전년보다 8%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600원이었음.
 - 5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4%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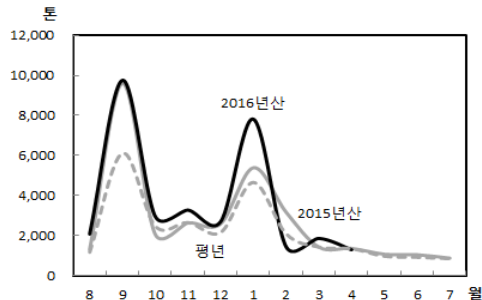
- 2017년 재배면적 추정
 - 2017년 사과 재배면적은 신규식재 증가로 1% 증가한 3만 3,548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하고, 성목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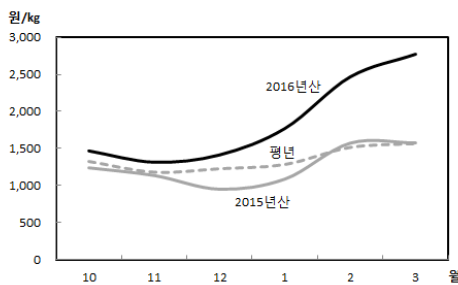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8%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9천 원이었음. 이는 반입량이 전년보다 11% 늘었기 때문임.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전년보다 5%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6천 원이었음. 5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재배면적 추정
 - 2017년 배 재배면적은 농가고령화, 가격하락, 도시개발 등으로 전년보다 4% 감소한 1만 744ha 수준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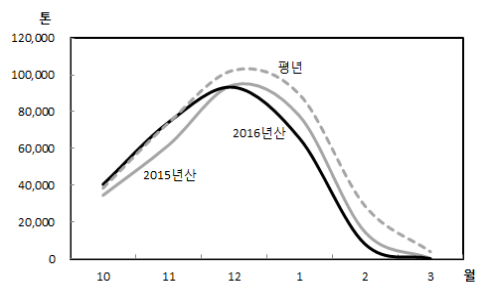
년보다 감소하는 반면,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과 품종다변화 시도로 신품종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 감소 및 품질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66% 높은 kg당 2,337원이었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5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극조기 가온 재배농가가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적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재배면적 추정
 - 2017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333ha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1% 줄어든 반면,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FTA지원사업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각각 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4.4. 포도

- 2017년 재배면적 추정
 - 2017년 포도 재배면적은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재배형태별로는 노지포도가 전년보다 11%, 시설재배는 9%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 2017년 2/4분기 전망
 - 4~6월 시설포도 출하면적은 가온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4~5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6월에는 전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7월 이후 시설포도 출하면적은 무가온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5. 복숭아

- 2017년 재배면적 추정
 - 2017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한 2만 578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 증가로 전년보다 5%,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 전환으로 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로는 천도계가 1% 증가하였고, 유모계는 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천도계·유모계 모두 최근 만생종 가격 호조로 만생종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복숭아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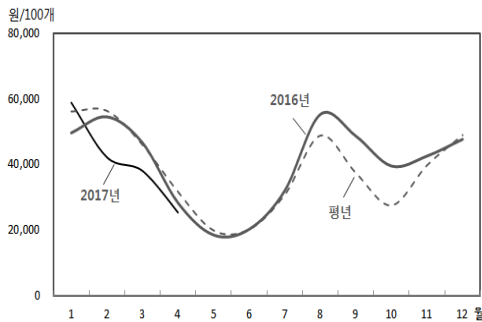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7년	5,685	14,893	20,578
2016년	5,392	14,485	19,877
증감률	5.4	2.8	3.5

자료: 통계청(2016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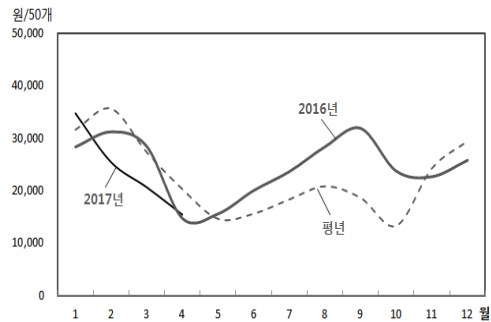
5. 과채¹⁶⁾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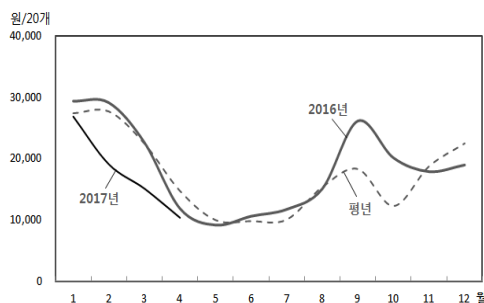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월 5만 8,800원, 2월 4만 2,200원, 3월 3만 8,0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4만 6,3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 1/4분기 반입량은 재배면적 확대와 작황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16% 많았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월 3만 4,700원, 2월 2만 5,400원, 3월은 2만 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대체품종인 백다다기오이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8% 낮은 2만 6,900원이었음.

1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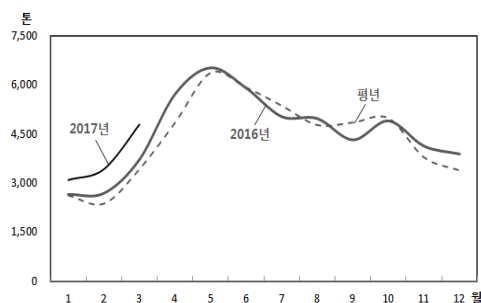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보다 10% 낮은 상품 100개에 2만 5,300원이었음.
 - 5~6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산지인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면적이 확대되고, 강원지역의 출하가 일부 빨라져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면적은 비슷하나 주 출하지인 전남의 바이러스 발생, 밤 기온 하락 등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보다 5% 높은 1만 5,400원이었음.
 - 5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적고, 6월은 강원·경기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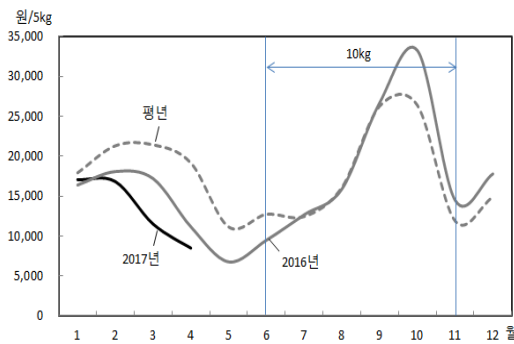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월 2만 6,800원, 2월 1만 9,000원, 3월에는 1만 5,1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5% 낮은 2만 3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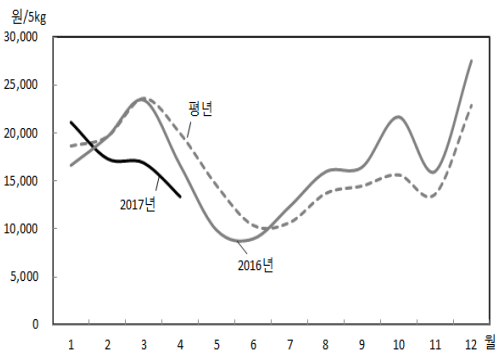
- 1/4분기 반입량은 경남 진주 등 겨울 재배지 면적 확대와 작황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25% 많았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유통업체 행사에도 불구하고 영남의 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13% 낮은 상품 20개에 1만 300원이었음.
 - 5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가 이어지는 경남 진주에서 재배규모가 확대로 전년보다 증가하고 6월은 영남과 호남 농가들의 가격 하락에 따른 조기 종료로 출하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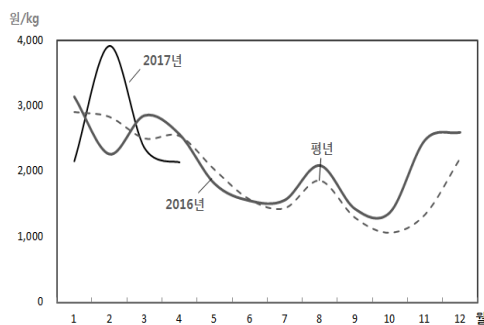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1~3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5,100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낮았음. 이는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여 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7% 많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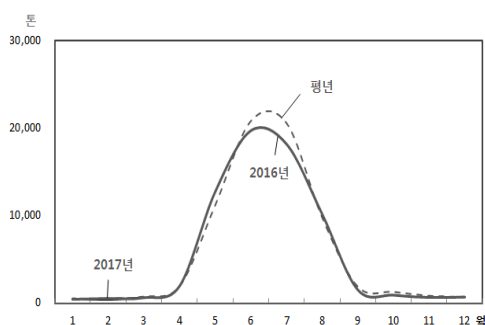
- 1~3월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8,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 낮았음. 이는 반입량이 전년보다 적었으나 소비 부진으로 과채류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동반 하락하였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8,500원으로 전년보다 24%, 원형 방울토마토는 1만 3,400원으로 20% 낮았음. 이는 4월 7~11일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일조량이 증가하여 일반토마토 3~4단과 원형 방울토마토 6~7단 물량이 함께 출하되면서 중순에 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임.
 - 5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출하면적이 늘고,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5월 원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나, 대추형으로 품종이 전환되어 출하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6월 일반토마토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하고, 원형 방울토마토는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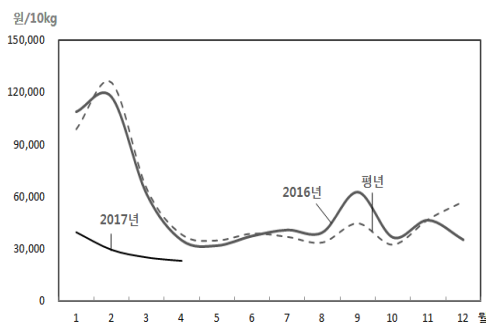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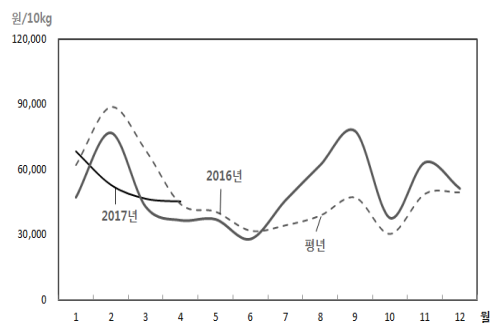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 2,140원, 2월 3,940원, 3월 2,36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 높은 2,810원이었음.
 - 수박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하였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17% 낮은 상품 1kg에 2,160원이었음.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경남 함안에서 출하시기를 전년보다 앞당겨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하였음.
 - 5~6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비중이 큰 영남과 충청에서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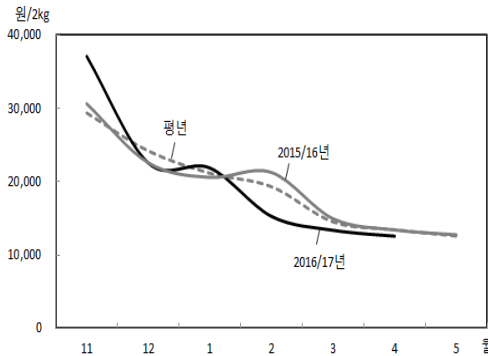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이 3만 9,500원,

2월 2만 9,500원, 3월에는 2만 5,1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67% 낮은 3만 1,4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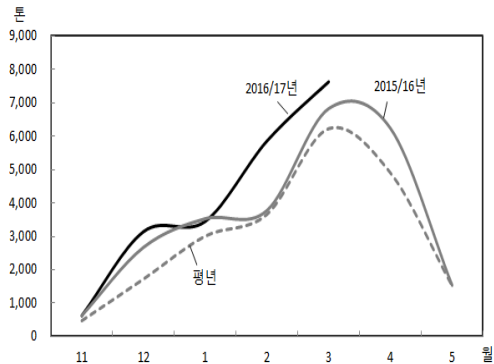
-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하였음. 최근 2년 간 겨울철 가격이 높아 주산지인 경남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일반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에는 6만 8,300원, 2월 5만 2,900원, 3월은 4만 6,5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 높은 5만 5,900원이었음.
- 일반꽃고추(녹광) 1~3월 반입량은 주산지의 면적감소로 전년보다 22% 적었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청양계꽃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34%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3천 원이었음. 4월 일반꽃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4%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5,300원이었음.
 - 청양계꽃고추 4월 반입량은 영남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았으며, 일반꽃고추(녹광)는 출하기 가격 약세로 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적었음.
 - 5~6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영남과 호남에서 출하면적이 줄어 감소하겠음. 이는 올해 초부터 지속된 가격하락의 대책으로 경남에서 청양계꽃고추 재배면적 34ha를 별채하였고, 호남에서는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정식면적이 줄었기 때문임. 일반꽃고추(녹광)는 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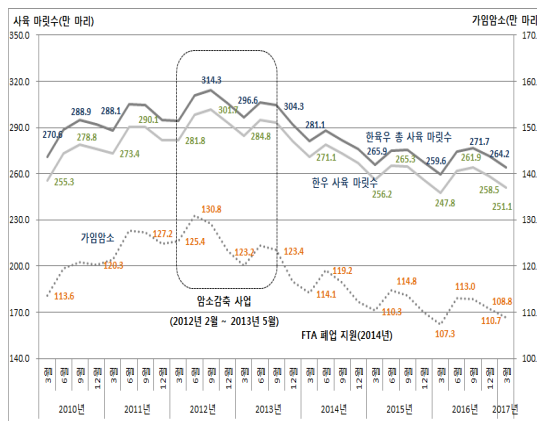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월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7년 1/4분기 동향
 - 1~3월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6,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낮았음.
 - 이는 전년 정식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면적이 늘었고,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여 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많았기 때문임.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6% 낮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2,600원이었음. 4월 상순에는 기상이 좋아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았으나,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출하를 조기 종료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중순부터 출하량이 감소하였음.
 - 5~6월 딸기 출하량은 최근 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 조기 종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¹⁷⁾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7년 1분기 동향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12월(272만 마리)보다 2.8% 감소한 264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60만 마리보다 1.5% 증가).
 -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74만 2천 마리, 한우 251만 1천 마리, 육우 13만 1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08만 8천 마리(전년 동월 107만 3천 마리)
 - 수요 감소로 2017년 1/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016년 4/4분기 16,784원/지육kg보다 3.0% 하락한 16,286원임(전년 동기 18,414원보다 11.6% 하락)
- 2017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1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지인배 연구위원(ji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pal5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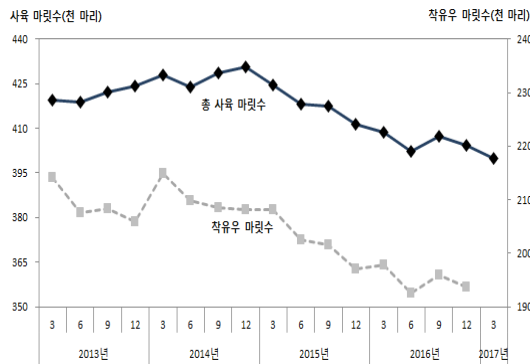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소비 위축으로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19,073원보다 13.1% 하락한 16,573원이었음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보다 4.9% 증가한 275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74만 마리보다 0.5% 증가).
- 공급물량 증가와 수요 불확실성 증대로 5월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약세인 15,000~17,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9,000원보다 15% 내외 하락).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2017년 3월(A)	2017년 6월(B)	B/A
사육 마릿수	264만 마리	275만 마리	4.2%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1~3월 16,286원	5~6월 15,000~17,000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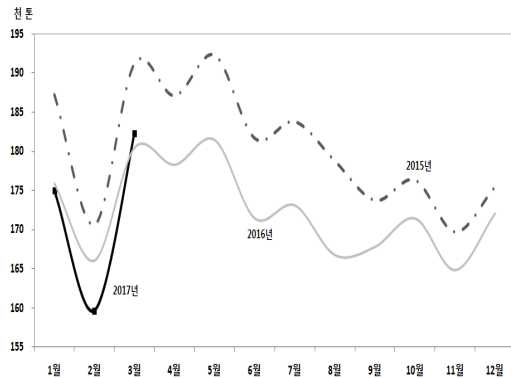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 2017년 1/4분기 동향

- 3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원유 감산 대책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전분기 대비 1.1% 감소)한 40만 마리였음.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세 미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함.
- 가임암소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전분기 대비 1.2% 감소)한 28만 7천 마리임. 1/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51만 7천 톤임.
- 2017년(2월 기준) 분유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38.4% 감소한 1만 2,040 톤임. 원유 감산 대책의 시행 이후 분유재고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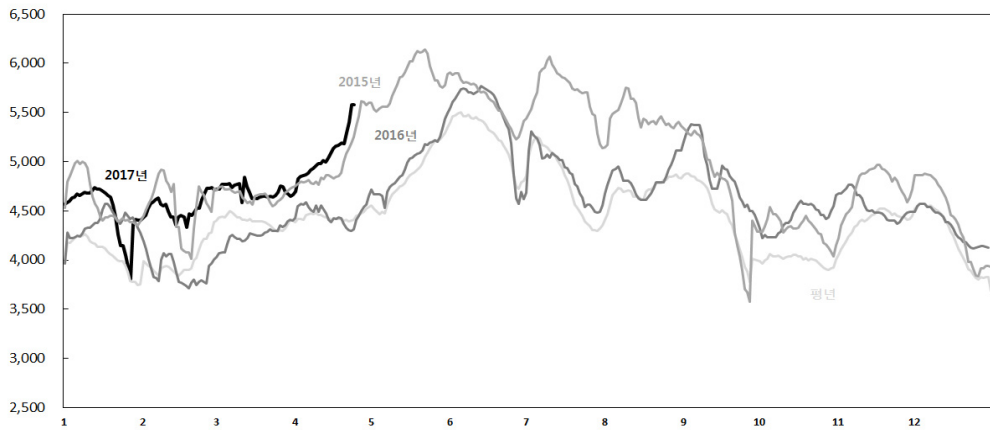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전망

-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53만 1천~53만 6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탕박 지육가격(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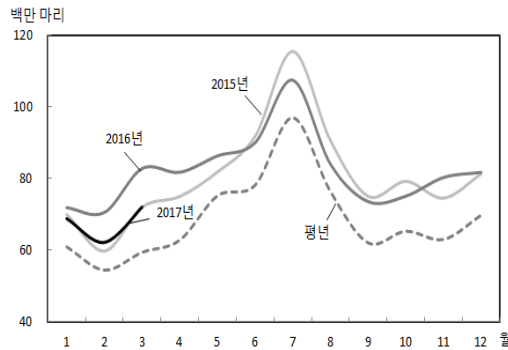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7년 1/4분기 동향
 - 2017년 3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한 98만 6천 마리였음. 모든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1% 증가한 1,033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 증가한 427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1/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4,191원)보다 10.0% 상승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609원이었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여름 폭염피해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1.3% 감소한 389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 감소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7년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5,105원, 5월 5,400~5,700원, 6월 5,600~5,9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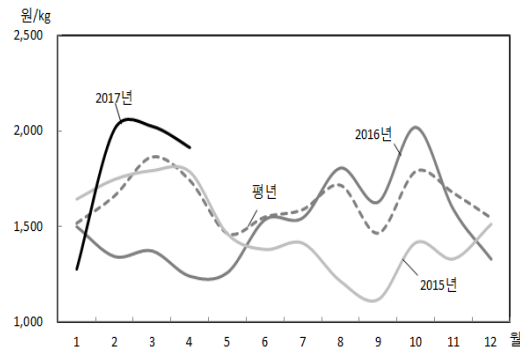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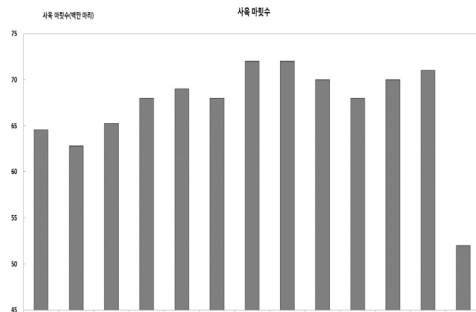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7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병아리 생산 감소와 입식 제한 등으로 1/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0.0% 감소한 2억 3백만 마리임.
 - 도계 마릿수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1/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 전년 동기간 대비 26.0% 상승한 1,769원/kg임.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HPAI 발생으로 인한 종계 매몰처분 영향으로 종계 성계 사육이 감소하여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감소로 2/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2억 3천 2백만 마리로 예상됨.
 - 닭고기 공급 감소로 2/4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4월: 1,984원/kg, 5월: 1,800~2,000원/kg, 6월: 1,700~1,9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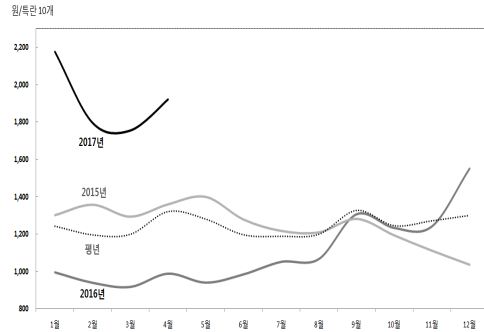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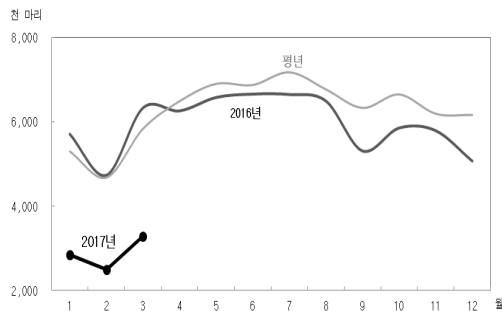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2~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7년 1/4분기 동향
 -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26.5% 감소한 5,161만 마리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1~3월)은 814만 마리로 전년 동기간보다 26.4% 감소하였으나, 3월 입식 마릿수가 365만 마리로 평년수준을 회복함.
 - 산란 성계 도태는 전년보다 73.7% 감소한 284만 마리였음.
 - 1~2월 산지가격은 AI로 인한 공급 감소와 명절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평균 105.3% 상승한 1,985원/특란10개이었으며, 2월말 약보합세였던 가격은 3월 개학을 맞아 급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91.3% 상승한 1,754원이었음.
- 2017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부활절 이후 특별한 수요 증가요인은 없어 계란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HPAI 피해로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농가의 생산주령 연장으로 2017년 2분기 6개월령 이상 산란용 사육 마릿수는 평년 대비 약 90% 안팎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4~6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95.7% 상승한 1,800~2,0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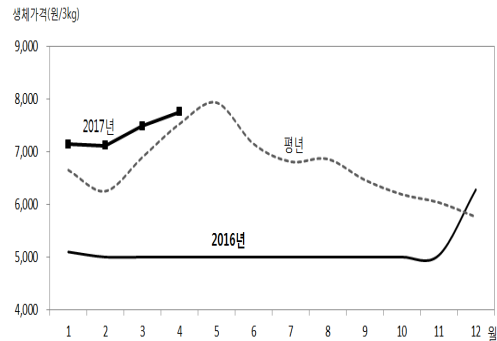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2~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2~1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7년 1/4분기 동향
 - HPAI 발생으로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41.4% 감소한 557만 마리임. 종오리는 전년보다 32.4% 감소한 51만 2천 마리이며 육용오리가 전년보다 42.2% 감소한 505만 8천 마리임.
 - HPAI 발생으로 육용오리 입식이 감소하여 1/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48.5% 감소한 864만 마리임.
 - 도압 마릿수 감소로 1/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44.0% 상승(평년 대비 16.7% 상승)한 7,249원임.
- 2017년 2/4분기 전망
 - HPAI 발생으로 도압 마릿수가 감소하여 3~5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2% 감소한 1만 6,767톤으로 전망됨.
 - 오리고기 공급량 감소로 4~5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8,200~8,7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❶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 ❷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 ❸ 위기의 견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이명기*, 유찬희**

1. 신정부 농정 공약 개관

- 더불어민주당은 신정부 공약을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음.
농정 공약은 4대 비전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 제시되어 있음.
-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서 농정 공약을 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농업·농촌·식품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였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4대 비전	12대 약속	세부 약속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0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01.01. 적폐청산 01.02. 권력기관 개혁 01.03. 정치·선거제도 개혁
	02.공정한 대한민국	02.01. 경제민주화
	03.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3.01. 민주·인권 회복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0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04.01. 일자리 창출 04.01.0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04.01.02.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 04.01.03.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 04.01.0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04.02.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04.03. 노동존중 사회 실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mklee@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chrhew@krei.re.kr)

4대 비전	12대 약속	세부 약속
	0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05.01. 미래성장동력 확충 05.02.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05.03. 중소·중견기업 육성 05.04. 과학기술(R&D) 진흥
	0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06.01.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06.02. 살기 좋은 농산어촌
	0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07.01. 저출산·고령화 대책
	08.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08.01.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08.02. 주거 문제 해소 08.03.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08.04. 생활비 절감 08.05. 국민 휴식권 보장 08.06.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0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09.01. 책임국방 09.02. 국익우선 협력외교 09.03. 평화통일
	10.안전한 대한민국	10.01.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0.02. 생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1.01. 성평등한 대한민국 11.02.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12.01. 문화·예술·체육 12.02. 언론

자료: “나라를 나라답게”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2017.5.12.)

1. 1. ‘살기 좋은 농산어촌’ 중 농정 공약

-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서는 8가지 공약(어업·어촌 관련 제외)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분야는 제도 및 거버넌스, 쌀 가격 안정, 경영 및 소득 안정, 농업인 복지, 여성 농업인, 유통체계, 숲의 가치 재정립 등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세부 공약

공약	주요 내용
1.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1-1.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1-2.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1-3.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1-4.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2.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 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2-1.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2-2.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2-3.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2-4.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소비 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 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2-5.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
3.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3-1.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3-2.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3-3.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3-4.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3-5.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Project” 시행
4.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4-1.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4-2.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4-3.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4-4.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공약	주요 내용
	4-5.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4-6.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4-7.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4-8.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5.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5-1.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5-2.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5-3.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5-4. 주민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 급식센터 설치 확대 5-5.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 5-6.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강화 5-7.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5-8.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6.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6-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6-2.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6-3.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6-4.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6-5.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지원, ‘지역종합센터’ 기능 확대, 농협 상호금융 지역투자 활성화 6-6.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 의무자조금 확대
7.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7-1.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 7-2.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 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7-3.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

공약	주요 내용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습니다.	8-1.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8-2.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8-3.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 조성 8-4.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8-5. 산촌을 은퇴자·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육성 8-6.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자료: “나라를 나라답게”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2017.5.12.)

- ‘살기 좋은 농산어촌’ 내 공약을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1) 거버넌스·제도, 2) 성장동력 확충, 3) 다원적 기능 강화, 4) 생산·유통·소비, 5) 경영 및 소득 안정, 6) 일자리·인력, 7) 복지, 8)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농정 공약 목적·기능별 분류

공약기능	거버넌스 및 제도	성장 동력 확충	다원적 기능	생산· 유통· 소비	경영 및 소득 안정	일자리· 인력	복지	여성
1.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특별기구 설치	4차 산업, 생태농업 6차 산업 육성	생태농업 6차 산업 육성	경자유전 재확립				
2. 쌀값, 쌀 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통일 대비 식량정책, 식량자급 강화	쌀 생산안정 쌀 소비 확대 농사용 전기료			
3.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농산물 제값받기		직불제 개편	농산물 제값받기	재해 관련 법 개편,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 인식불 도입, 공공임대 농지 지원		
4.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업인 안전보험 개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촌, 농촌주민 복지 개선	
5.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지원조직 육성,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 수립			여성 농업인 유통 지원제도			해당 공약 전체	해당 공약 전체
6.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해당 공약 전체				
7.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해당 공약 전체			주요 품목 자율 쿼터제 도입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습 니다.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 으로 육성	국민 여가 공간 조성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 으로 육성, 소득안정 강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귀산·귀촌 활성화	국민 여가 공간 조성,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 목적·기능별 분류를 토대로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기존 농정에서 강조하던 생산·유통·소비, 경영 및 소득 안정, 복지 등을 유지하고자 함.
 - 사회적 여건과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다원적 기능 강화, 일자리·인력, 여성 농업인 정책 등을 강화하고자 함.
 - 4차 산업을 활용한 미래농어업 발전 기반 조성 and 일자리 창출·확대는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거버넌스와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함.

1. 2 타 분야 중 농정 관련 공약

- 다른 분야 공약 중 식품안전성과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
 -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제거(식품표시제 도입, 통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올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국가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안전인증 의무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매장·농민장터·농가 레스토랑 조성, 농어업 연계 생협조직 활성화 지원, 친환경 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를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하였음.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우리나라 축산 환경을 고려하여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및 지원 강화,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시 축사시설비 지원,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일자리 관련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약에서도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음.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에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까지 확대(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 도우미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를 제시하였음.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재생하여 주민 공동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 실현, 사회적 경제로 시민생활과 복지서비스를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시장 기능에 맡기거나 공공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운 기능과 서비스를 자생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함. 농촌 지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주거, 돌봄 서비스 등에 대응하면서, 영농 활동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한부모·조손가족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등도 농촌 지역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됨.
- 제도·거버넌스 분야(‘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도 농정 거버넌스 및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임.

타 분야 농정 관련 공약

구 분	공약	주요 내용
적폐청산	1.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을 기본으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 중심의 개헌 추진 •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정착
일자리 창출	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래 성장 동력 확충	1.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 추진
	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습니다.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 산업유발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5. 협력 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품위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 –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 경제 상품·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에 국가 R&D 투입: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학습사회 실현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재생하여 주민공동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 실현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거점 육성 ※ 주거+일자리+보육 통합형 / 문화+창작+일자리+주거 통합형 / 관광 +먹을거리+지역사회 통합형 등

구 분	공약	주요 내용
		• 사회적 경제로 시민생활과 복지서비스를 개선 - 신규 사회·공공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한부모가정통합돌봄서비스 등)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 경제적 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 우리 동네 어르신 돌봄 서비스(공공 노인주간보호센터, 협동조합형 요양원 등) 확충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1.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2.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축제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하는 경우 세금 공제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5.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8.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 및 복지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 인프라 강화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 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

구 분	공약	주요 내용
국익우선 협력외교	2.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 확대 •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3.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중·일 FTA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한·중·일 3국의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 - 북한의 WTO 가입 등을 통한 북한의 국제 경제체제 편입 지원 -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B),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연계를 통하여 북한 인프라 개발 추진 •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추진 -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고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를 일본,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진출시장으로 적극 개발 -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통상 선진 국가 클럽(일명 ‘서울 클럽’) 구성 •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조직 역량 강화 - 재외공관을 해외진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거점으로 적극 활용 - 대외경제정책 조정 기능, 통상외교 전문성, 국제 통상 분쟁 대응 역량을 적극 강화
평화통일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 추진 •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
자연적·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제거 - 식품표시제 도입, 통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올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
생활 안전	2. 소방청 독립, 소방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 보다 촘촘한 형태의 구급망을 구축하여 119 응급구조서비스 선진화

구 분	공약	주요 내용
강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지역(소방 지역대)에 119 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고, 도서·농어촌 지역 등 응급의료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헬기 배치 확대
	7.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 의무화 -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 검사 통과 제품만 소매 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 •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구현 -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 공공 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 학교 과일 급식 실시 및 우유 급식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 농민장터, 농가 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의 소득 향상 추진 - 식교육, 도시농업, 슬로푸드, 전통식품 홍보 확산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푸드 스탬프) 도입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농어업 연계 생협조직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빌딩, 하우스농업, 공장, 가정 등의 에너지 실시간 측정 및 미세기상 예측에 의한 수요 예측에 따라 전력 사용량 최적화 실현
	4.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환경 조직 재편 검토 -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직 재편 검토 • 배출권거래제도 전담 부서 조정 검토 -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억제

구 분	공약	주요 내용
	8.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고려하여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및 지원 강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 시 축사시설비 지원 -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추진
문화 ·예술 ·체육	2.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 -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영향평가제도, 국민관광신탁제 도입

2. 시사점

- 농업·농촌 공약에서 표방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은 새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음. 세부 공약 내용은 농업인과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려는 정책임.
-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첫 번째 공약인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임. 지난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이 국가 어젠다가 되지 못하여 농정 주무 부처만의 업무로서 추진된 경향이 있음. 그 결과 유관 부처와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 그동안 농업·농촌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여러 측면에서 기여를 해왔고, 국민 역시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지원을 마

다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연이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업과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쌀 과잉생산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났으며, 난개발 때문에 농촌다움을 잃어버린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해지고 있음.
- 농업 부문에서 공급하는 농식품은 매일 모든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고 있음. 농촌은 그 먹거리가 생산되고, 모든 국민이 다양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찾으며, 모든 국민의 이웃이 살고 있는 공간임. 요컨대 농업·농촌은 농업인만의 산업, 농촌 주민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국민의 산업, 모든 국민의 공간임.
-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농업을 국가 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촌을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삶의 공간으로서 그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요한 점은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책들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임. 농가 소득안정,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복지, 생산자 조직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 농업의 유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농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 관련 정책이 크게 강조한 것이 특징임.
 - 가장 중요한 내용은 농산물 자체의 안전성과 더불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농식품 전반에 관한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을 제시한 것임.
 - 이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증 및 표시제, 친환경 학교급식, 사회적 약자 공급식, 로컬푸드 및 농민장터, 생협 조직 활성화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먹거리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함.
 - 생산자와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식생활과 취약계층 영양 개선,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 등을 향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가축질병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축산 부문 공약은 동물복지 중심으로 제시되었는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약화되어 온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교훈삼아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즉, 공약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을 지방분권형으로 개편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방분권형과 참여형 추진체계는 농업생산 및 유통과 같은 이윤 추구 목적의 경제활동보다 공동체 활성화, 복지 서비스 제공, 환경 보전 등 비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함.
 - 특히,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은 협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농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농어업회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이번 공약에서 제시한 쌀 관련 공약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수년 간 쌀이 공급 과잉되면서 정부는 대규모 쌀변동직불금을 농가에게 지급하였으며, 농업계 외부는 이를 정부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음.
 - 공약으로 제시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이 쌀 수급안정과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임.
 -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공약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향후 다소 모순이 되는 공약들을 점검하고 정리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정부 정책 공약의 제목인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즉, 자유, 평등, 복지(삶의 질)안전, 평화, 환경 등에 최상위 가치를 두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됨.
- 농업·농촌·식품 정책 역시 농식품의 효율적 생산과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가 기본적 가치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즉, 경제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와 환경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농촌 환경 등과 같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농정을 펼칠 필요가 있음.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김종진**, 김종인***, 조남욱****

1. 쌀 수급구조 및 정부대응

- 국내 쌀 수급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수년째 이어짐.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정부는 쌀 수매정책, 이중곡가제 등의 다양한 생산량 증대 노력 수행
 -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소득증대에 따라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빨라 공급과잉 상황으로 전환
 - 최근 10년간(2007~2016양곡연도)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8만 톤가량¹⁾이 공급과잉된 것으로 분석됨.
- 작년에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감소함.
 - 3년 연속 풍작으로 2016년산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량보다 많아 수확기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불사태도 발생
 - 수확기 가격이 129,711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이 AMS 지급한도인 1조 4,900억 원에 도달

* 본고는 「현안분석-제 31호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jkim@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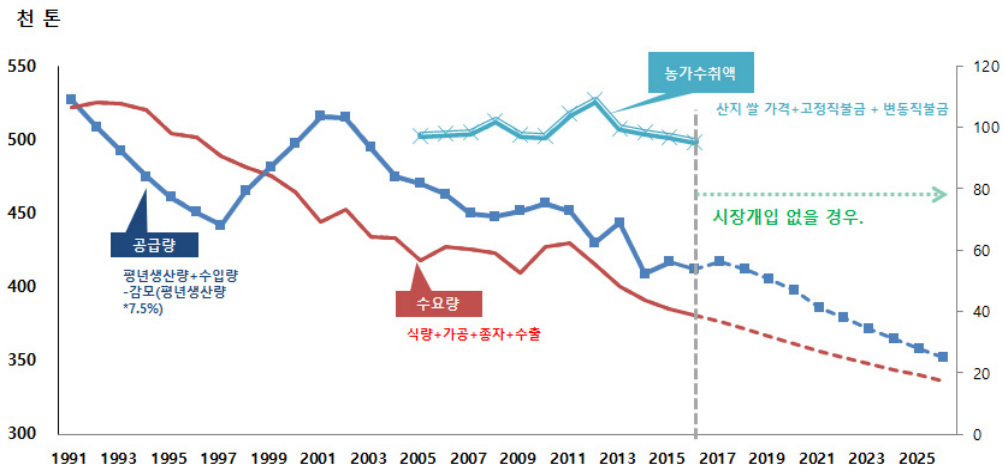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ukjo@krei.re.kr)

1) 기상상황에 따른 생산량 변동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평년단수를 적용

- 한편, 특별 재고처리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재고는 누증되고 있음
 - 쌀 재고량은 평균적으로 8~10년 주기로 증감이 반복되었으나 2010양곡연도 재고과잉 이후부터는 5년 만에 재고누증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재고증감 주기가 짧아짐.
 - 고미의 사료용 이용 등의 특별재고처리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시장격리로 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연도별 쌀 공급 및 수요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농업관측본부

- 정부는 기존의 2015년 대책에 유통·해외원조·제도개선 분야를 추가 및 세분화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
 - 생산 측면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 논 활용 다양화²⁾, 고품질 쌀 생산 유도로 적정생산을 유도
 - 고미의 사료용 이용 등의 특별재고처리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시장격리로 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2) 논콩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만 톤을 논 콩으로 별도 배정하고 콩 구매량을 총 3만 톤으로 증량하였고, 콩 구매가격도 전년대보다 3.7% 인상한 kg당 4,011원에 구매하기로 결정

- 소포장(5kg 이하) 유통,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등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 쌀 가공 및 쌀가루 산업을 육성하고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 APTERR를 통한 원조(1천 톤 내외)를 금년 상반기 내 실시하고, FAC 가입 연내 추진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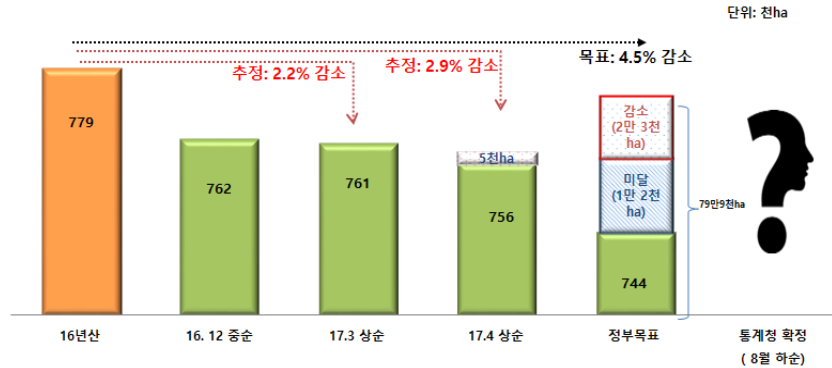
2. 2017년산 쌀 수급전망

- 농가는 연초 수립한 영농계획에 따라 당해 벼 재배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3월에 실시되는 농가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는 통계청 재배면적 확정치와 유사함.
 - 과거 쌀 관측보의 추정치와 통계청 확정치의 오차³⁾ 추이를 보면, 3월 상순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가 실제 벼 재배면적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를 통한 생산량 예측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파종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면적을 감축시키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 6천ha로 정부 목표치인 74만 4천ha에 비해 1만 2천ha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2월, 금년 3월과 4월, 3회에 걸친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금년 벼 재배면적은 정부감축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 단, 정부가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2017. 2. 13.)을 계기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논 타작물 전환을 적극 추진한 결과, 4월 벼 재배의향 면적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⁴⁾이 감지됨.

3) 농가 재배의향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오차는 0.1%~1.2% 수준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음.

4) 4월 조사치에서 3월 조사보다 5천ha가 추가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적정생산 유도정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임

2017년산 벼 재배의향면적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벼 표본농가조사 결과(2016년 12월, 2017년 3월, 4월)

- 금년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 톤 이상 많아 올해도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확기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동직불금 발생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재배의향면적 추정치에 평년단수(522kg/10a)와 전년단수(539kg/10a)를 적용할 경우, 2017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대비 각각 6.0%, 2.9% 감소한 395만 톤, 408만 톤으로 예상⁵⁾
 - 생산량 전망치(평년단수 적용)와 신곡예상수요량⁶⁾을 비교할 경우, 약 10~15만 톤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추정
 - 초과공급 발생 전망에 더하여 현재 쌀값 하락으로 인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높은 상황으로 금년도에도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쌀값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이 AMS한도를 초과하여 소득보전 정도가 악화되므로 농가들도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쌀값은 수급상황에 더하여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데 연이은 풍작으로 현재 가격수준이 매우 낮고 또다시 과잉공급이 발생할 경우, 투매 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5) 단, 기상상황에 따라 생산량 변동 가능성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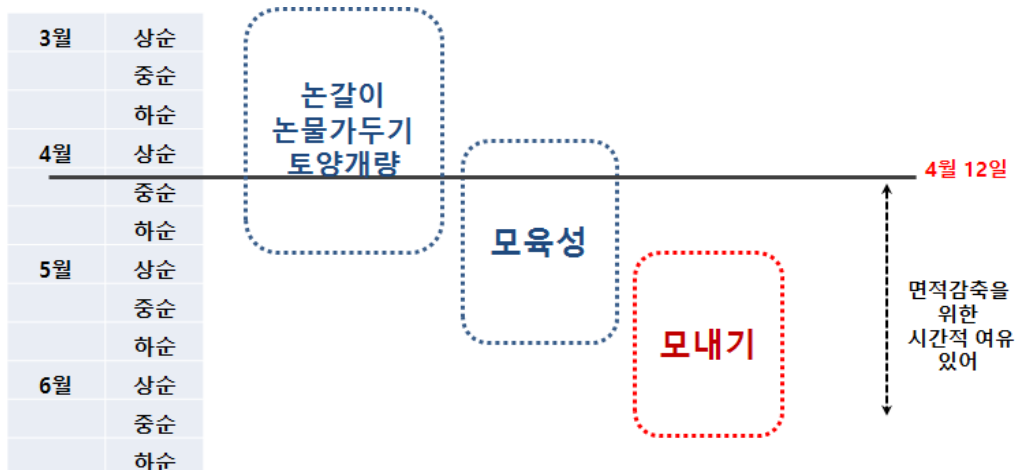
6)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8양곡연도 신곡수요량을 380만~385만 톤으로 예상

- 추가적인 쌀값 하락은 정부의 재정 부담에 더하여 농가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농가도 이를 인지하고 정부의 적정 생산유도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필요

3. 남은 과제는?

-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으나 이모작 논의 타작물 유도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만 모내기 시기는 5월 상순~6월 중순으로 이때 벼 재배면적이 대부분 결정됨.
- 단, 이모작 논의 모내기는 7월 초까지 계속되므로 단작 형태의 논보다는 이모작 논의 타작물 유도 측면에서 다소 시간적 여유 존재

시기별 벼 주요 농작업



자료: 농촌진흥청 농작업 일정

- 농가의 타작물 전환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환된 타작물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작물에 편중되지 않는 수준에서 타작물 전작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 있음.
 - 약 8천ha 정도의 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되고 이중 30.3%(2.5천ha)가 사료작물, 25.8%(2천ha)가 콩, 19.9%가 무·대파 등의 채소류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전작작물로는 참깨, 옥수수, 고추, 파프리카, 애호박 등이 있음.
 - 다만, 특정작물에 집중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논콩 전환의향면적 수준에서는 금년 콩 수급에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콩으로의 추가적인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콩 수매가격 인상 및 수매물량 확대로 금년 콩 수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⁷⁾.
 - 다만, 정책을 인지하는 농가가 54.9%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콩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소질 과잉시비를 통한 생산량 증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파종기의 밑거름, 새끼칠거름에 질소비료의 적정 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질소질 비료는 벼가 자라는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쌀 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현재의 공급과잉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임.
 - 또한, 금년부터 쌀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질소비료 과다투입 자제 필요

7) 논콩 면적증가에도 금년 국산 콩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증가한 면적이 평년보다 27.4% 적은 수준이고 현재 콩 가격도 전년대비 각각 17%, 8% 높고, 정부 콩 수매계획량 3만 톤은 전체 생산량의 40% 수준이기 때문임(2016년 산 기준).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송성환**, 노수정***, 신성철****, 김성우*****

1. 문제 제기

- 고추는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양념으로서 요리의 다양화에 기여해 왔음. 고춧가루는 주된 반찬인 김치에서부터 나물, 탕(湯)류, 조림, 라면 등에까지 사용되면서 얼큰한 맛을 내는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얼마 전부터 언론매체에서는 ‘건고추산업 근본치방 필요하다’(농민신문, 2016. 12. 16.), ‘고추 자급률 휘청 외국산 60% 점령’(농민신문, 2016. 11. 30.), ‘건고추價 하락...정부·농협 재고량 많아’(농수축산신문, 2016. 10. 5.), ‘고추 생산기반 지켜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 2016. 8. 16.), ‘건고추·마늘 등 양념채소 생산기반 흔들’(농민신문, 2016. 8. 12.) 등과 같이 국내 고추산업 위기를 언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고추 생산액은 2015년 8,806억 원으로 마늘(3,920억 원), 양파(4,120억 원)보다 약 2배 많아, 건고추는 여전히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양념 채소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배추, 무, 마늘, 양파 등과 함께 주요

* 본고는 「현안분석-제 29호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을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nosu303@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sc0729@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채소로서 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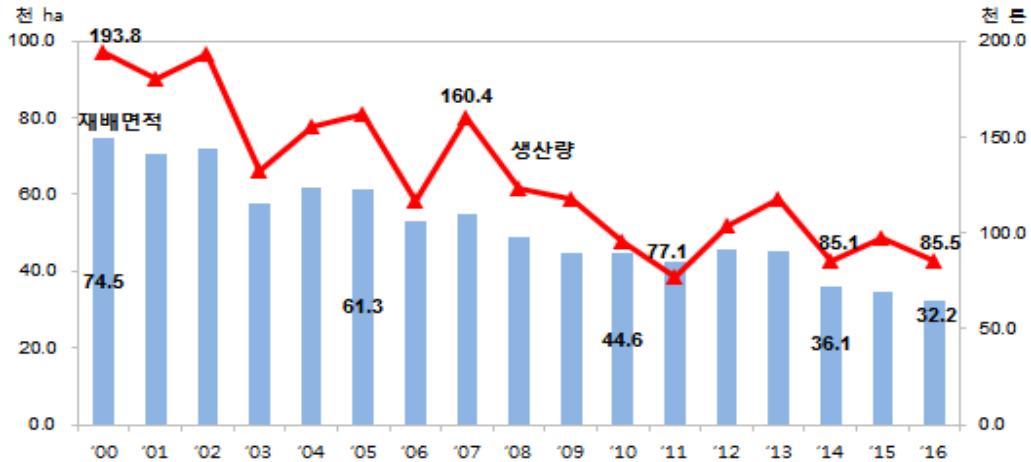
- 그러나 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은 32,179ha로 2000년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85,453톤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15년 실질생산액(건고추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2010=100)도 7,425억원으로 2000년 대비 49% 감소하여 국내 건고추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건고추산업 위기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건고추산업 현황

2.1. 급격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

- 건고추 재배면적은 2000~2004년 6만 7,341ha에서 2010~2015년 4만 1,435ha로 연평균 5.1%씩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3만 2,179ha를 기록하였음.
 - 특히, 2012년 이후 연평균 감소율이 9.2%로, 2000~2011년(연평균 5.1%)에 비해 감소폭이 더 확대되었음.
-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대과종, 내병성 품종 등의 보급 및 재배기술 향상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0.6%씩 증가함.
 - 단위당 수확량은 기상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2011년에는 여름철 잦은 비로 역대 최저치인 181kg을, 2007년에는 기상이 좋아 역대 최고치(292kg)를 기록하였음.
- 건고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2000년 19만 3,786톤에서 2016년 8만 5,453톤으로 연평균 5.1%씩 감소하였음.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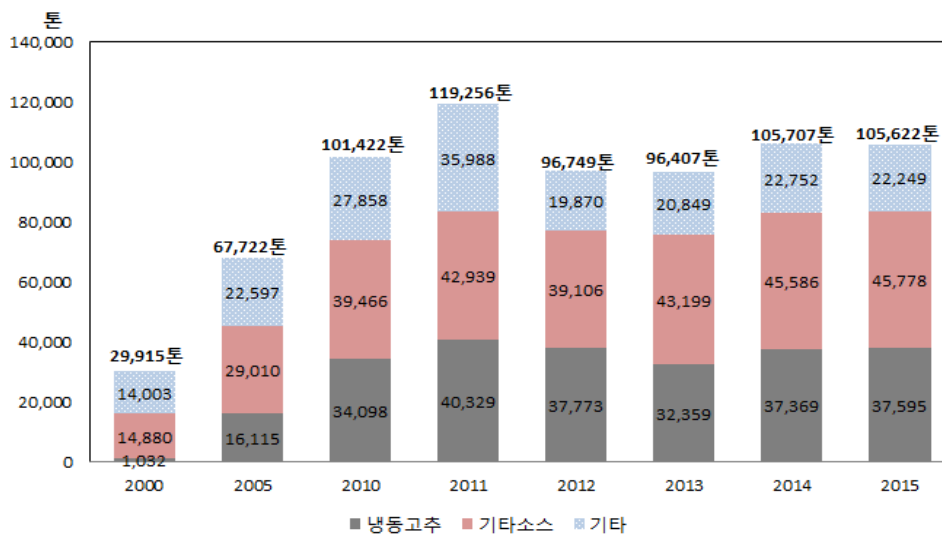
2.2. 2000~2015년 고추류 수입량 연평균 8.4%씩 증가

- 고추류¹⁾ 수입량은 2000년 2만 9,915톤에서 2010년 10만 1,422톤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1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건고추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 수입량은 11만 9,256톤으로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였음.
 - 국내 생산량이 10만 톤으로 증가한 2012~2013년에는 수입량이 약 9만 7천 톤이었으나, 2014~2015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고추류 수입량은 10만 5천 톤을 넘어섰음.
- 수입은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건고추나 고춧가루(270%)보다는 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27%),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스(45%) 등 고추 관련 품목 위주로 증가하고 있음.

1) 건고추,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과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등에 포함된 고춧가루를 의미하며, 해당 품목에 포함된 고춧가루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수분을 제거한 건고추로 환산하였음.

- 건고추나 고춧가루는 전체 고추류 수입의 10% 미만이며,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추 관련 품목은 수입업체 및 대량수요처가 선호하여 전체 고추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반 79%에서 2011~2015년 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고추 수입 실적(연산기준: 8월~익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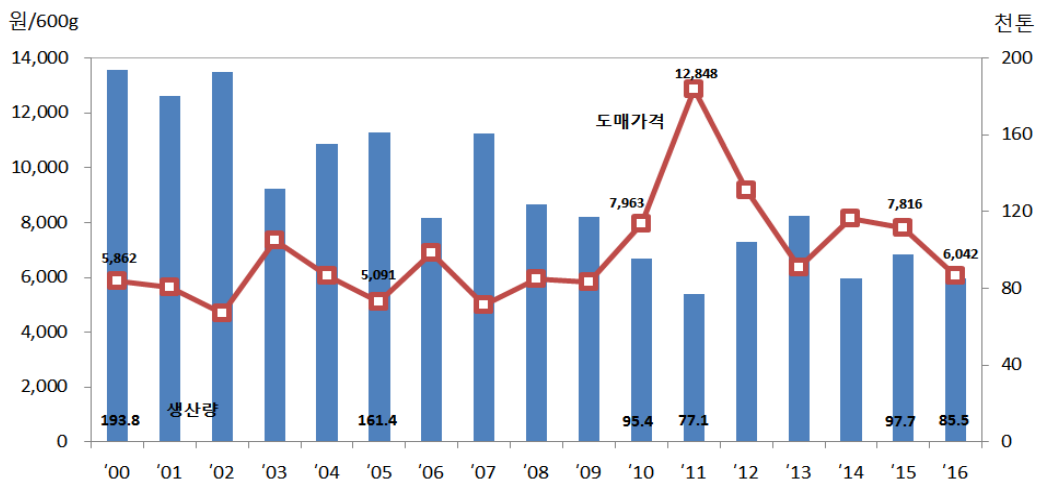
주: 기타는 냉동고추와 기타소스를 제외한 전체 고추류 수입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 국내산 소비 감소로 가격 약세 지속

- 2000년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은 19만 4천 톤에 달하였으나, 2016년에는 재배 면적 감소로 8만 5천 톤이 생산되어 연평균 5.1%씩 감소하였음.
- 2011년 국내산 생산량이 태풍 등 기상 재해로 7만 7천 톤에 그치면서 도매가격은 연평균 1만 3,840원/600g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2011년에 건고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김치공장 등 대량수요처 수요가 수입산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아졌음.

그러나 한 번 중국산을 사용한 대량수요처의 수요가 다시 국내산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국내산 건고추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이월 재고량이 늘면서 건고추 가격은 지속적인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국내 건고추 생산량과 실질 도매가격 동향



주 1) 실질가격은 연도별 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하여 건고추 연산기준(8월~익년 7월)으로 환산한 가격임.

2) 2016년은 2016년 8월~2017년 1월까지 평균 가격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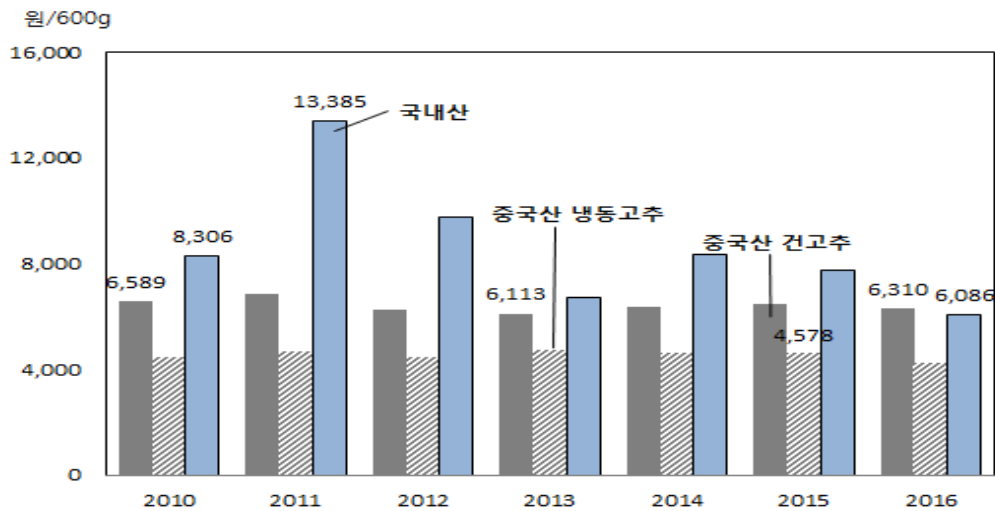
3.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3.1. 수입산 냉동고추의 높은 가격경쟁력

- 고추 관련 품목 중 냉동고추는 국내 가격이 높았던 2011~2012년 이후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2000년 1,032톤에서 2010년 이후 3만 6천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고율관세(270%)로 수입되는 건고추의 최근 3년 평균 국내 판매가격은 600g당 6,380원으로 국내산 가격 대비 평균 86%로 추정됨.

- 한편, 냉동고추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세척 건조과정을 거친 건고추의 국내 판매가격은 600g당 4,470원으로 국내산 가격의 6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냉동고추의 가격경쟁력이 높음.

수입산 건고추 및 냉동고추 국내 판매가격 추정



주 1) 중국산 건고추는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해상운임을 포함한 CIF 가격이며, 2016년 11월까지 기준임.

2) 냉동고추 관세율은 27%이며, 가공을 위한 제 비용에는 가공비, 판매비, 건조비 등이 있음.

3) 국내산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화건 상품 가격이며, 2016년은 12월까지 가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본부 해외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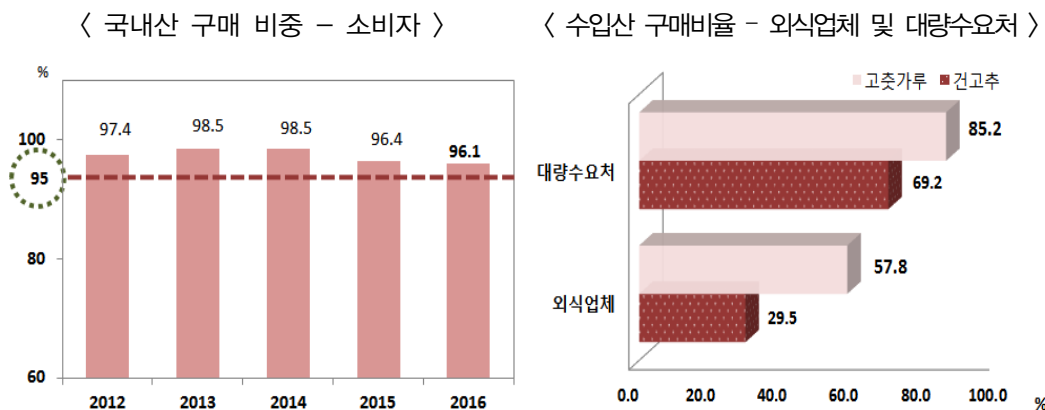
3.2. 외식업체, 대량수요처의 수입산으로 수요 대체

- 일반 가정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내산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으며, 건고추(고춧가루) 전체 구매량 중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으로 조사되어²⁾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 소비자의 건고추(고춧가루) 구매 시 품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산지과 가격, 안전성(친환경 인증 여부)인 것으로 조사됨.

2) 2016년 12월 20~22일 801명의 가구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한편, 외식업체 조사결과,³⁾ 수입산 건고추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량의 30%이 나, 고춧가루는 58%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량수요처⁴⁾의 경우, 고춧가루 구매량의 85%는 수입산으로 구매하고 있어 국내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도 적은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정수요로 이어져 국내산 건고추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건고추와 고춧가루 국내산 구매 비중 및 수입산 구매비율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조사치.

3.3. 재배농가의 높은 고령화율, 많은 노동투입시간

- 고추 농가의 70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015년 42.5%로 전체 농가 고령화 비율(37.8%)보다 4.7%p 높으며,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평균 160시간으로 마늘(124시간), 양파(101시간) 등 다른 양념채소류보다 많음. 특히, 타 작물에 비해 수확횟수가 많고 수확 기계화가 어려워 노동투입비중이 높은 상황임.

3) 외식업체는 2016년 12월 2~9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17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4) 대량수요처는 2016년 11월 14일~12월 23일 종사자 규모가 큰 상위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양념채소류 재배농가의 고령화 비율 및 노동투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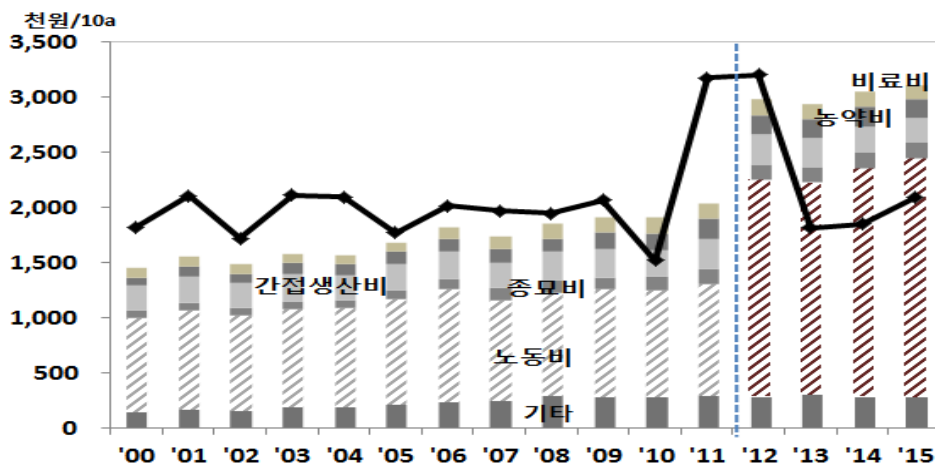
단위: %, 시간/10a

구분	70세 이상 고령화 비율				10a당 노동투입시간		
	전체	고추	마늘	양파	고추	마늘	양파
2011	33.7	36.4	38.7	31.8	159.4	121.3	99.9
2012	36.2	39.2	40.7	33.7	162.5	122.3	99.8
2013	37.7	40.9	42.3	33.4	154.6	125.6	106.8
2014	39.7	42.8	43.6	34.2	160.7	124.5	100.1
2015	37.8	42.5	43.7	35.4	164.2	124.3	97.7

자료: 통계청

- 고추 재배농가의 생산비는 인건비 증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소득은 2000년대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건고추 재배면적의 주요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생산비는 노임단가 기준이 변경된 2012~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씩 증가하였고, 고추 생산비 중 비중이 가장 큰 노동비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3%씩 증가하였음.

건고추 소득 및 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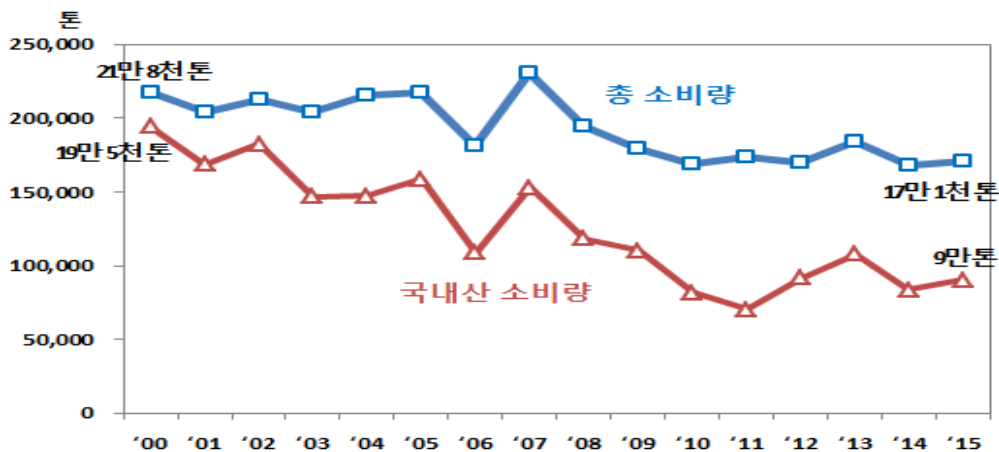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4. 국내산 건고추 소비 감소로 이월 재고량 증가

- 건고추 총 소비량은 식생활패턴의 서구화, 고추장과 김치 소비의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입을 포함하여 추정한 건고추 총 소비량은 2000년 21만 7,585톤에서 2015년 17만 1,369톤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함.
- 특히, 국내산 건고추 소비량은 2000년 19만 4,654톤에서 2015년 9만 191톤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음. 국내산 건고추 소비량 연평균 감소율은 5.1%로, 국내산 건고추 소비 감소폭이 총 소비량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건고추 총 소비량 및 국내산 소비량(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주 1) 건고추 연간 총 소비량은 1인당 소비량(KASMO 추정치)에 인구수를 곱하여 산출함.

2) 국내산 건고추 연간 소비량은 건고추 연간 소비량에서 수출입량을 감안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건고추는 다른 저장채소류와 달리 재고가 당해년에 전부 소비되거나 출하되지 않고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한 특성이 있음. 건고추 소비량은 감소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냉동고추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월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내산 생산량(수출입량 제외) 기준, 건고추 재고량을 분석한 결과, 2016년산으로 이월된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은 3만 톤 내외로 추정됨.
 - 국내산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였던 2011년에 민간재고량이 없었고, 수입량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에 소진된다고 가정
 - 2015년산 건고추 공급량은 12만 1천 톤, 소비량은 9만 톤으로 추정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

단위: 톤

구분	생산량	이월량	공급량	소비량	재고량
2014년산	85,068	22,604	107,672	83,900	23,773
2015년산	97,697	23,773	121,470	90,192	31,278
2016년산	85,453	31,278	116,731	81,555	35,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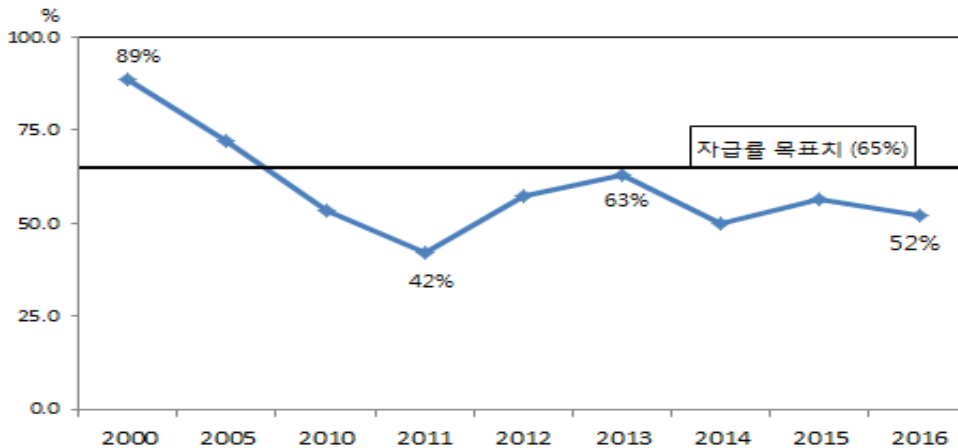
주 1) 국내산 건고추 연간 소비량은 건고추 연간 총소비량(1인당 소비량(KASMO 추정치)×인구수)에서 수출입량을 감안하여 추정함.

2) 월별 소비량은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월별 출하비중(평균 기준)을 연간 소비량에 곱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매년 이월되어 쌓이는 재고는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 결국 건고추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15만 톤 이상이었던 2000년대 초반 국내산 건고추 자급률은 7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5개년 평균 건고추 생산량은 9만 6,367 톤인 반면, 수입량은 10만 4,748톤으로 국내 생산량을 넘었음.
 - 국내산 건고추 이월량을 포함한 자급률은 54%

건고추 자급률 변화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시사점

4.1.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및 재배 품종 단순화

- 건고추는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타 작물에 비해 노동투입시간이 길기 때문에 고령농의 농지연금 확대를 통해 청·장년 농업인의 재배규모를 확대하고, 밭 기반 정비를 통해 기계화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수확기계 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추 품종의 다양화는 재배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으나, 소규모 농가에서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며 맛이나 매운 정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별로 맛, 매운 정도 등을 선택하고 품종을 단순화하면, 가공업체, 소비자 및 대량수요처의 선호를 반영하기에는 더 용이할 수 있음.

4.2. 소비처에 따른 다양한 고추 제조

- 가정 내 건고추 소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여전히 국내산 비중이 높으나, 외식업체, 대량수요처 등은 낮은 매입가격으로 수입산 건고추 및 고춧가루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일반 가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고추를 생산하고, 외식업체, 대량수요처의 수입산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안전한 고춧가루 제조를 위해서는 고추 종합처리장을 보유한 농협을 중심으로 건고추 수매에서 홍고추 수매로 전환하고, 선별-세척-세절-건조-제분 과정을 거쳐 미생물 및 잔류농약 관리로 안전한 고춧가루를 제조할 필요가 있음.
- HACCP 지정도 유도하여 고춧가루로 가공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혼합가공도 추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4.3. 도매유통의 비닐 포장 확대 및 품질 표시제 도입 검토

- 건고추의 도매시장 유통은 대부분 마대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과정 중 습도 관리에 취약점이 있음. 제분과정에서 습도는 수율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국내산 제분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음.
- 도매유통의 비닐 포장을 확대하여 유통 중 습도관리와 품종 및 생산자, 습도, 품위 등 다양한 생산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4.4. 혼합비율 허의표시 단속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2016년에 고춧가루 원산지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총 62건이며,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비중이 전체의 53.2%로 가장 많았고,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비중이 17.7%, 중국산을 혼합으로 표기한 비중이 16.1%이었음.
- 대량수요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혼합비율은 가공업체에서 표기하여 유통하고 있으나, 혼합비율에 대한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현재의 원산지 단속방법으로는 혼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별 비율을 판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혼합비율의 허위표시를 단속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4.5. 국내산 고춧가루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등급 표시

- 음식점 조사결과, 혼합된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이외에도 국내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을 표시하여 국내산 고춧가루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김치와 모든 음식에 넣는 고춧가루가 국내산일 경우: 1등급
 - 김치에 넣는 고춧가루가 국내산일 경우: 2등급
 - 김치를 뺀 음식에 넣는 고춧가루가 국내산일 경우: 3등급
- 외식업중앙회나 외식산업연합회 등 민간 법인단체를 활용하여 음식점의 등급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01-2017-01

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봄호 | 제19권 제1호 (통권75호)

등 록

인 쇄 2017. 5

발 행 2017. 5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056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KREI 농업관측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061-820-2056 Fax.061-820-2409
<http://www.krei.re.kr>



